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木)

伊國의强硬態度로 英伊會談遂決裂

英獨協定、對에問題에意見背馳로

今後外交交涉이注目

무首相 이든特使

【羅馬二十六日發聯合】二十四、五兩日에亘하야 뭇솔리니首相과 會談을遂한 이든特使는 二十六日午後다시外務次官스빅치氏와 會見한後午後에 巴里經由歸路의 途에올랏는데 兩國의 會談은 平常時와달라 極히 少數였던事實은 오히려 伊太利의 强硬을 說하야 事實上 決裂에終한것을 表示하는것으로 자못 注目되고잇다 卽 今回의 英、伊會談에서 뭇솔리니首相은 英、獨海軍協定에 不同意를表明하엿슬뿐아니라 에디오피아問題에 關하야 從來의 主張을固執하고 一步도 不讓하야 結局今後의 外交交涉에 맛기기로하고 事實上決裂된것이다

【電通羅馬廿六日發】英國特使 이든 無任相과 伊太利首相 뭇솔리니氏와의 二時間에 亘한會談은 終了하엿스나 에디오피아問題에 關한限 뭇솔리니氏의 態度는 자못强硬하야 英國의調停도 完全히 失敗하고 東亞弗洲의 風은 一層急迫하게되엇다

航空母艦等十三隻 新艦建造에着手

米國의海軍擴張案內容

【華盛頓二十六日發聯合】스완슨海軍長官은 水曜日午後의 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서 米國政府의 建艦計畫에 言及하야如左히 述하엿다 米國政府는 드듸어 海軍豫算에 基하야 먼저 新艦十三隻建造에 着手할方針으로 八月七日 建艦工事의 入札을 始作하기로되엇다 十三隻中 一隻은驅逐、一隻은 航空母艦、潛水艦八隻 (그中一千八百五十噸三隻、一千九百噸 五隻이다) 潛水艦三隻의 豫定이다 海軍省은 目下 華府條約에 基하야 廢棄代換할 艦艇數를 硏究中인데 締約國政府가 어떤 方針인지 아즉모르므로最終的決定을 보기에는 이르지아니하엿다

新聞記者團으로부터 華府、倫敦兩條約이 드듸어失効하게되면 米國政府는 他海軍國에對抗建艦工作에 進出할心算이냐 하는 質問이 나왓는데 스완슨長官은 言질을 避하면서 米國政府는 建艦競爭을 始作하는것을 바라고잇지는안타 라고應酬하엿다(寫眞은 스長官)

主力艦代艦 建造開始는保留

【電通華盛頓廿六日發】米國海軍主力艦中 今年으로써 艦齡滿期가되는 뉴욕、텍사스、알칸사스의 三戰鬪艦及 이에 繼續하야 明年滿期가되는 오크라호마、네바다兩戰鬪艦의 代艦建造에 關하야 米國海軍首腦部가 그着手를 決意하엿다고 傳하야 注目을끌고잇든이때에 스완슨海軍長官은 二十六日 記者團에 對하야 右計畫의 着手決定을 保留하엿다는旨를 實明하야 如左

北平武官室發表

【電通北平二十七日發】關東軍武官室午前十一時四十分發表 察哈爾事件에 關하야 六月二十三日以來 正式交涉이잇섯는데 察哈爾當局은 日本의 條理잇는 解決案을 容認하야 愼重히 遺憾의 意를 表하고 關係者를 處罰하고 또 善後處置에 關한 具體的 便法을 商議 理할것을 承諾하야 玆에 交涉은 圓滿히 解決을 告하게 되엇다 이제는 다만 이 誠意잇는 實行을 기다릴뿐이다

宋軍全部撤退로 國境風雲平穩化

【電通新京廿七日發】獨石口北方滿洲國領土內로 不法越境한 宋哲元軍은 多倫으로부터 移動한 李守信軍과 漸次接近하야 二十六日來對峙中이든바 秦德純氏는 日滿兩國과의 事件擴大를 虞慮하야 宋哲元軍에게 嚴重한撤退命令을發하엿음으로 右宋軍은今朝來滿洲國領土內로부터一兵도남기지안코 獨石口方面으로부터西南方으로 撤退를開始하엿다 그때문에 國境의風雲은 平穩에歸하엿다

宋軍의不法越境 現地解決을訓令

【電通新京二十七日發】獨石口北方 宋哲元軍의 不法越境射擊에 依한 滿洲國側의 損害에 對하야는 詳細는 不明하나 本事件에 對한 陳謝、責任者處罰及將來의保障에 對하야는 察哈爾省主席 秦德純氏를 相對로 關東軍代表 土肥原少將으로하야금即時現地解決을 行케하기로되어 關東軍에서 右訓令을 發하엿다

米政府七月부터 兩海兵團復活

【華盛頓二十六日發聯合】米國政府는 一九三三年七月 經費節約目的으로 그리든레브스와 [illegible] 兩海兵團을 [illegible] 七月一日부터 新會計年度에잇서 그리든레브스兩海兵團을 再開하기로 決定하엿다 [illegible]

察哈爾省政府 排日禁止令發布

【電通北平二十七日發】察哈爾省政府는 二十六日附로써 友邦과의 國交를敦厚케하고저 이것을 排斥又는 惡感情을 挑發하는 排日言行은 不許한다는 排日禁止命令을 發하엿다

話題解說 商震

◇商震氏 字는 啓予、河北省保定縣人으로 一八八五年生이다 保定陸軍速成學堂 北京陸軍大學을卒業한後 淸朝末年에 [illegible] 閻錫山氏의 [illegible] ◇一九二七年 [illegible] 山西國民革命軍 [illegible] 一九二八年에 [illegible] 北平 [illegible] 一九二九年 [illegible] 一九三〇年 [illegible] 一九三三年 [illegible]

察哈爾問題一段落 日本의要求承認

……秦德純氏土肥原少將을訪問코 正式回答文書를手交

【電通北平二十七日發至急報】秦德純氏는 二十七日午前十時十五分北平武官室을 訪問하고土肥原關東軍司令官代理에 對하야日本軍의要求에·對한全面的承認의正式回答文書를手交한後 다시察哈爾事件發生에 對하야謝罪하는뜻을表하야 玆에事件은全然解決되엿다

察哈爾事件 最終的解決

【北平廿七日發聯合】南京政府의 確認으로 第二張北事件以來前後一個月에亘한 察哈爾事件도玆에 最終的解決에到達케 되엿는데今回의協定內容은 嚴重秘密에附하여잇스나大體로 이미 察哈爾政府와第二十九軍 當局에서 履行을完了한非武裝地帶設定에는 南京政府에서 難色을示하야 協定確認을遲延하야 現在에及한것이라고하는데 協定內容으로傳하는바는左와如하다

▲張北事件善後處置

一、直接責任者第百三十二師參謀長及軍法處長을 罷免하고第百三十二師를高陽으로移駐할것

一、本件에對하야 陳謝의意를表하야 宋哲元氏는 察哈爾省主席과 第二十九軍長의職을辭退할것

◇察哈爾省黨部正處置

一、今後省內에 排日行爲의再發을 阻止할것을保障할것

一、省內國民黨部를 解散하고其他排日團體를解散하고 此種團體의組織을 絕對로禁止할것

◇新非武裝地帶의設定

一、沽源으로부터南方獨石口赤城을連하는 一點을劃하야 昌平延慶線을結하고 延慶에서 塘沽停戰協定에 基하야 非武裝地帶를 接續하야 이 一點과國境線으로된 三角地帶로부터察哈爾軍을 撤收할것

一、右地帶는 今後駐兵치안코새로 保安隊를 組織하야治安維持를圖할것

不侵略案代案 共同委員會案提出

廿六日廣田、유大使會談에서

◇……廣田外相이提案

【電通東京電話】二十六日의廣田유레니에프會談에잇서 日滿蘇三國共同委員會設置案이 廣田外相으로부터 提案되엿는데 右는蘇聯側에서提案한 不侵略條約案에 對하야 日本側이 代案으로提案한것이다 同委員會는 蘇滿國境에서 發生될紛爭이發生될 豫防하기爲하야 萬若紛爭이發生될境遇에는 相互協議를 行하야 問題를 局地的으로 解決하기爲하야 外務當局에서考究하고잇든 原案은大體 左와如한것이다라고 傳한다

一、哈爾賓에 中央委員會常設委員會를 設置할것

一、小委員會는 當該地의 三國政府代表로써 組織하되 此에軍事委員을參加케함

一、國境地方에서 紛爭이發生될境遇原則的으로는 當該地方의小委員會에서 局地的으로 解決을圖하되 解決이 困難한境遇에는 哈爾賓中央委員會에移送하야 同委員會에서 解決을希望이 보이지안는境遇에는政府間의 交涉으로移하게함

(寫眞은 廣田外相과 유大使)

其他國境要地數個所에 小委員會를 設置할것

中央政治會議에

對日根本方針通過를企圖 巨頭會議結果에依해

汪精衛氏

【電通南京二十六日發】汪精衛氏는 陳儀、熊式輝氏等의 入京을 기다려 何應欽、唐有壬、張群、陳儀、熊式輝氏等과 함께 北中、察哈爾兩問題의 善後措置와 今後의 對日根本方針에 依하야 大師聲을 行하야 그結論을 基礎로 各自反對派의 說服에 努力하고 大勢의 豫想이 確實히 보인다음에 드듸어 中央政治會議에 上程하야 一擧에 汪精衛의 對日方針으로 通過를圖할 方針이라고 한다 그리고 汪精衛氏가 今後의 方針은 如左한것이라고 보인다

一、中國을 救하는길은 日中關係를 是正하야써 現下의 不安을 除去하고 日中提携의 大道에서는것이 最大의 急務이다

一、따라서 日中關係正常化를 [illegible] 하야 排日取締는 勿論、自發的으로 兩國關係의 改善에 努力할것

一、이意味로 日本側에 誠意를 披瀝하기爲하야 對日方針의 再宣明及 [illegible] 派遣等을 考慮할것

一、懸案인 北中問題의 文書回答도 局地的見地에 基하야 어떠한 形式으로 此를實行할것

汪精衛獨斷으로 日本에文書回答?

【電通南京二十六日發】北中問題에 關한 中國側의 文書回答은 內部에 硬軟兩論이잇기때문에 아직決定되지못하엿다 汪精衛氏는 一部反對派의 策動을 避하기爲하야 獨斷的으로 實行하고 中央政治會議에는 事後報告의形式을 取하게될 模樣인데 今月末에는 何應欽氏의 名義로써 北平에서 高橋武官에게 手交할模樣이다

米海軍當局發表 大演習結果發表

【華盛頓二十六日發聯合】南太平洋上의 劃期的大演習以來 米國海軍當局은 오래 沈默을 지키고잇더니 스탠드리軍令部長은 二十六日 演習結果를 要約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今回太平洋上의 演習에는 [illegible] 飛行機는 [illegible] 水上艦艇에 代位하야 [illegible] 同樣의 [illegible] 實이 明瞭하게되엇다 그러나 各種艦艇의 [illegible] 一九三五、六年度豫算으로 新艦艇二十四隻 建造에着手하게되엇스나 今回의 演習으로 此等新艦艇의 竣工이 如何히 必要한것이 立證되엇다 米國海軍의 保有艦艇이 從來에比하야 增加하야 [illegible] 할수잇게된것은 欣快한일이다

外蒙에抗議

【新京廿六日發聯合】外蒙兵의不法越境事件에 關하야 關東軍은 二十六日如左한 聲明을發하엿다 日本側調査員이 甘珠爾廟地區의 測量에 從事하고잇슴에 突然外蒙兵이 不法越境하야 調査員을拉致하엿다 日本側은 同事件을 重大視하고 여러가지로 調査한後 外蒙政府에 嚴重抗議할것이다

北中權益無異狀 英外相의議會答辯

【電通倫敦二十六日發】二十六日의 英下院에서 호어外相은 北中問題에 關한 質問에 對하야 如左한 答辯을 與하엿다 政府는 北中政策은 同地에잇서서의 商業、經濟上의 利權을 保護함에잇다 現在까지에는 同地方의 英國의 權益은 最近의 北中事態로 何等影響을 밧지아니한것이 判明되엇다 現在 北中門戶開放은 阻害되지아니하엿고 따라서 日本과의사이에 問題가 일어날것은업다

獨建艦完成年限 英政府照會中

【電通倫敦二十六日發】英國政府는目下 獨逸政府에對하야 獨逸政府는 一九四二年까지에 英獨協定의 對英三割五分建艦을完成할與否의 點을 確探하고잇는데 英國政府는 伯林政府로부터 右情報에 接하기까지 英佛海軍專門家會議 開催를延期하기로되엇다

文部省서硏究中인 學制改革案內容

【電通東京電話】文部省의 學制改革에關한 硏究調査는 最近非常히 進捗되엇슴으로 七月中旬까지에 省議에서 決定하야 夏休後 九月에는 文政審議會의 諮問에 附議한다는旨를松田文相이 言明하엿는데 今回文部省에서 硏究하고잇는 學制改革案의 要旨는 左와如하다

一、小學校의 制度는現在대로함

一、中學校는 修業年限을四個年으로하되 一個年의 高等科又는 專攻科를設置할것

一、實業中等學校는 現在대로함

一、高等女學校는 實科를 廢止함 中學校와 同樣으로修業年限을四個年으로하되 一個年의高等科又는專攻科를 設置할을得함

一、師範學校는 中學校卒業者를 入學식혀 專門學校程度로함

一、高等學校大學校는現在대로함

뭇솔리니首相 新聞省設置

【羅馬二十六日發聯合】에디오피아國境紛爭事件의 重大化로 뭇솔리니首相은 新聞通信機關에依하야 國策을中外에宣明할必要를 痛感하고從來의 新聞宣傳局을 强化하야 新聞宣傳省을 設置하기로 決定하엿다

人事 集會

▲池田警務局長 二十七日午後六時半에總督府出入記者團을朝鮮호텔에招待

▲鮮于全氏 本社新築落成人事次 來社

八面錄

本社主催의 故土訪問音樂團二十六日夜 東京을出發。大邱서 二十九日 京城서 三十日과 一日에演奏。◇將來 우리樂壇의 主人公들이 萬丈의 氣焰을 吐할機會。◇우리 樂壇의 重鎭이될 桂貞植氏 地方巡演을 始作하야開城서 二十八日 鎭南浦서 一日演奏。◇이지음은 正히 音樂시즌 ◇民間新聞으로 最初에 購入한 本社의 高速度輪轉機 昨日로써 裝置를 完了코不日內 運轉을開始。◇新聞은 社會의 公器、本報에 新生命이 注入?

新成한比律賓國 【四】

……結局永世中立國成立乎?

安在鴻

윌손氏의 民族自決 原則은 比律賓에서는 그 眞正한 適用을 보게되것이다 一九一六年以來 人民의 投票에 依하야 上下兩院이 成立되고 만흔 行政의權을가진 比律賓人들은 윌손氏의 主張한 그 制度文物의 整備와 自主制의 政治를 하기爲하야 또는 獨立의用意 [illegible] 第二의 大國家를 [illegible] 東洋 [illegible]

合法的 非合法的인 途程으로 論者의主張하는 盲動 暴動 騷動 諸動의 갓가지의 經路를 지나 오늘에온것이다 이것을 만일 아일랜드 自由國에 比한다면 윌손氏는 自由黨의 英首相 글랫스톤氏와 가른地位에잇고 아기날도將軍은 데·발레라氏와 彷彿한 地位에 잇다하겟는데 [illegible]

× 아기날도將軍은 米國의 比島領有以來 政治의 表面에 나서지안코 [illegible]

西 兩個의 섬나라의 人民의 政治的行進의 段階가 자못 興味잇는者이다 이제 데·발레라氏는 一時의 退隱을 지나 畢竟 아일랜드自由國의 大統領으로되엇는데 아기날도將軍은 그 大統領의 選擧戰이 반드시 有利하다고 할수업다 [illegible]

그러고그는 軍閥的인 國將이지만 政治的運動에는 안조하하는氣質이다 그러고도 比律賓人中에는 將軍이 끗까지 米國軍과 抗戰하야 죽은後에만 [illegible] 交涉과 要請의 [illegible] 으로써 [illegible] 十年後 [illegible] 永世中立國 [illegible]

國에關한 九個國條約에서처럼 그範圍가넓으나 日、米、英、佛、蘭諸國이 그重要한者이오 그中에도 日、英、米三國이또 [illegible] 比律賓人보다도 一層의 關心을가지는者는 [illegible] 十年後에 完全自立 [illegible] 어찌하면 自己들의 [illegible] 作戰의 海軍政策이 [illegible] 比律賓國으로 [illegible] 國際的 [illegible] 할수잇슬가? 한에잇는것이다 米國人의 見地로는 [illegible] 東方政局上의 一個 [illegible] × 아기날도이거나 吾人은 以上의 [illegible] 比島와의 地理上의 相互關係와 米國의 [illegible] 比島의

[illegible] 이다 特殊한 情勢 [illegible] 留意할 [illegible] 世界政策은 [illegible] 傳統的 [illegible] 그대로 [illegible] 世界 [illegible] 特殊文化性 [illegible] 獨自的生活體制를 [illegible] 成功하엿다고하는것이 現代까지의 歷史인것은 또 一般識者의 留意할點이다 (完)

頭腦過勞

執務、工夫中에머리속이압흐고…머리가朦朧하고…焦心되고…思考力이減退된다…

그것은…

貴下의 머리가、激甚한 疲勞에苦楚를밧고잇는 훌륭한證據다!

그때에…

ノーシン의疲勞恢復作用을일으킬 絕好한 찬스다。

곳ノーシン을

主效 頭腦過勞、頭重、頭痛 頭內朦朧、精神憂鬱 宿醉、船車멀미

胃腸에無害

定價 .30 .50 1.00 2.00

어느藥店에나잇슴

頭腦疲勞恢復藥

ノーシン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在東京朝鮮人樂家 廿七名總動員

廿九日은大邱、卅日七月一日은京城、三日은平壤

本社主催로大公演

樂界初有의豪華陣

조선악단수십년래처음되는한가지경사로 또는본사신사옥오주년기념과본사축괴념사업의그하나로 발흠 동경악단(東京樂壇)에서 활략하고잇스며 동경악단을 진동하는 재동경조음악가 협회(在東京朝鮮音樂家協會)의음악가。우리동포의천재음악가이십칠인을초빙하야본사주최로고토방문음악대연주회(故土訪問音樂大演奏會)를 개최하게되엇슴은이미보한바어니와 일행은 지난이십륙일에 동경을떠나이십팔일에대구(大邱)에도착하야 그이튿날인이십구일밤에 대구에서같이 연주회를맛추고 즉시로 경성에도착하야 삼십일과 칠월일일이틀밤 경성에서대공연회를개최하기로되엿다 그리고즉시칠월삼일은 평양(平壤)에서계속하야연주회를개최하기로되엇는데 임이이번이고토방문공연의회는전조선사녀(士女)제위의인기를비등케 하고잇슴에따라도처에서 이공전의쾌거는바야흐로조선악단의 새기원을지울것으로밋고이파회잇는일행의 착경을고대하는중이다。상세는추후에발표하겟거니와 이번이일행의씨명과프로그람은아래와갓다

故土訪問演奏會參加者樂家

指揮·金文輔 責任者·朴榮根

『피아노』尹棄燮、李光葉

『第一바이요린』洪志裕、第二바이요린』崔東燮 『비오라』林春洪 『첼로』金泰濂

『쏘프라노』金安羅、吳貞淑、金星姬、尹明淑、崔聖子、洪性玉

『알토』金錦女、金永順、劉永順、朴明孝

『테너ー』金承模、金山穆、李想春、李安道、禮鉉、方一、崔昌殷

『빠ー스』張飛、林濟錫、朴浩允、崔熙南

푸로그람

第一部

一、混聲合唱 協會合唱團

二、빠ー쓰獨唱 張飛

ㄱ、歌劇魔笛中에서『사라스트로의詠唱』 모찰트曲

ㄴ、大自然의讚歌 베ー토벤曲

三、二重唱

테너ー 李想春

바리톤 崔熙南

歌劇라보엠中에서

四、피아노三重奏

『詩人과農夫』序曲 폰치니曲

피아노 李光葉

바요린 洪志裕

첼로 金泰濂

五、바리톤獨唱 金文輔

ㄱ、아베마리아 꾸노曲

ㄴ、조수되자장歌 ...

六、絃樂四重奏

第一바이요린 洪志裕

第二바이요린 崔東燮

비오라 林春洪

첼로 金泰濂

세레나ー데 모찰트曲

七、二重唱

테너ー 金山穆

바리톤 林濟錫

歌劇마당째리中에서

八、混聲合唱 協會合唱團

ㄱ、꾀꼬새 멘델손曲

ㄴ、할렐루야 헨델曲

休 憩

第二部

一、混聲合唱 協會合唱團

ㄱ、歌劇 카바레리아 루스치카나中에서 『오렌지香氣』 마스카니曲

ㄴ、歌劇 트로바토레中에서 『流浪民의合唱』 베르디曲

二、二重唱

쏘프라노 崔樂子

테너ー 方一

ㄱ、歌劇椿姬中에서 베르디曲

ㄴ、歌劇 『그리운里』 베

三、첼로獨奏 金泰濂

ㄱ、二人擲彈兵 슈ー만曲

四、바리톤獨唱 金文輔

이탈리스키曲

五、絃樂四重奏

ㄴ、歌劇 『에로디아』中 마스네曲

『살로메』

崔東燮 洪志裕 林春洪 金泰濂

六、三重唱

쏘프라노金安羅

테너ー 崔昌殷

빠ー쓰 張飛

ㄱ、進化者의獨奏曲

ㄴ、가뭇 그라조놉曲

七、混聲合唱 協會合唱團

ㄱ、騎士의合唱 와ㅂ넬曲

ㄴ、天地創造曲 하이든曲

(但 演時變更도잇슴)

指揮 金文輔

伴奏 金泰燮 李光葉

警官瀆職에刺戟 渡航取締猛團束

六十餘名當務警官增員과함께 取締官取締도考慮

경무국에서는 조선인도항자 취체사무에 당하는 경찰관리의 강긔문제에대한국청방침을 엄밀하엿다한다 원래도항자 취체를금년에는륙십여명의 경관까지 증원하야도항자취체의강화는물론 밀항자의취체망을확대하여엿섯든바 현지경찰관이자긔직무를 리용하야증명서의부정교부뇌물수수등을한일은경찰의체면에관계될뿐아니라 그런일이잇서가지고는 도항자취체의 강화가 어렵다하야 특히이러한 사무를취급하는 경관에대하야특별한주의를 식히어경찰계의 확청을도모하라고 엄달하엿다한다

素砂疑似虎列剌 誤診으로判明

道에서檢屍한結果

부천군소사면 중리(富川郡素砂面中里)차모(車某)의 형인강성수(姜聖洙)(三○)는 이십사일에 발병하야 부근 조종리(朝宗里)그친척의집에 도라와가지고 이십륙일오후에 그만죽엇다고 한다 부근의사가 진찰한결과 의사호열자(疑似虎列剌)라고하야 이보고를받은 경찰부위생과에서는깜작놀라서 즉각으로 부근일대의교통을 차단시키고는 도전(稻田)경부가가래(加來)신(晋)반전(飯田)세기참이를 대동급거현장에급행하고 인천서(仁川署)에서는정상(井上)공의를 파견하야부근을 면밀하게 소독하는한편으로 곳 시체검사를 시작햇는데 제일차의검사결과 마침호렬자의 혐의가 도모지나타나지아니하야 혹은 음성(陰性)이나 아닌가하고잇스나 계속하야 사차오차까지도 검사하리라한다 부근의교통차단은 이상칠일에 인해해제하엿다고한다

仁川永ㄱ普校 勤續職員表彰

【仁川】일시 동명녕난에폐지 비운에잇섯스나 사회유지제씨의후원과동교교원일동의성의로 교사를중축하야 적정과 단심을싸아 화란솔겨그변서도 동교류홍수(柳洪秀) 선생은 오늘까지 꾸준히 근무하야 십년을 마지하게되매 동교합부형 제씨는 동창회에서도 표창식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시일은 칠월오일경이라하며지방에 잇는동창생들도 만히참가하야 주기를바란다고한다

고무신六百足 窃盜한者被逮

지난십팔일밤에 시내봉래정(蓬萊町)삼정목경성하주조합(京城荷主組合)오송점아메 둔고무운동화륙백사십켤레를도적해간범인은 그동안 서대문경찰서에서 사방으로 수사중이든바 이십륙일밤에 시외대현리(大峴里)사는 류해출(柳海出)(三七)을 그혐의자로붓잡아다가 취조한 결과 과연범행사실을 자백하엿다한다 그는 그도적한물품을 약삼백켜레가량은 문산(汶山)지방에 가지고가서 아주 헐가로 팔아먹엇는데 그것이 단서가 되여 드되여 발각되엇다 남아지 삼백오십켜레는 그의집에 숨겨둔것을 압수하엿다한다

獨身男子에게 詐欺結婚 被害者說諭를

【仁川】남자와공모하고독신남자를사기한녀자=인천화평리(花平里)백륙십오번지 전도화(田桃花)(三七)는 얼마전해주(海州)시내에배회하며 중매인으로 윤장섭(尹良燮)을 내세워 어떤남자든지독신자이면 동거하겟다함으로해주군 추화면월화리(海州郡秋花面月鶴里)김천문(金千文)이가동거를 요구하고 동비용으로 중매인에게 사십오원을 주엇든바 동거한지불과 이틀만에자긔오라버니가 병석에잇슴을 리유로인천을 단여온다고 하야노비까지주어 보냇더니 우금일개월이지나도록 도라오지아니 할뿐아니라 편지를하야도 반환을시키고 또한전하는바에 의하면일년동안에전긔와 갓흔수단으로오륙명의독신 남자의 금품을사취한후에는 종적을감추 사실이잇다함으로 김천문은 참다못하야전긔와갓튼 사실을들어 지난이십륙일인천서에 설유원을제출하얏다한다

竹添町에嬰兒屍

이십륙일오후여덟시쯤에 시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이백사십이번지압개천에 신문지에싼게집아이밝아숭이시체한개가 데굴데굴나울고잇는것을 그곳을통행하든사람이발견하고 서대문경찰서에신고하엿스므로 서원이 경찰의(警察醫)를데리고 곳현장에행하야검시(檢視)한결과나흔지는이십일이되여보이며 사산아(死產兒)인것이판명되엿는데 어떤여자가불의의 관계로 밴아이를사산하야 처치할도리가업서서 내여버린것이아닌가한다

豆滿江一帶의水害로 死者失踪十五名

◇漁船의流失만七隻

【警務局着電】일전에는비때문에 두만강일대에 수해가이러낫다함은긔보한바와갓거니와 그후의상보는 다음과갓다

一、두만강의각도선(渡船)은 이십사일까지에 전부운항을개시

一、다교(柳多橋)는 류실은아니되엿스나 교통은 위험하게되엿슴으로 륙월이십삼일부터 도보는 교통을하고잇다

一、어데진(漁大津)에서 출어중해방물명되어든 어선오십척중 무사히도라온 어선의류실과침몰 칠척 사자 세명 십일일이되어도 도라오지안어조난된것으로보인다

一、해상에서 조난한것으로 이십륙일까지에 판명된것은 다 음과갓다 행방불명자 십이명

極貧한求學少年

書店에서册子를誤竊

警察도同情하야給仕록紹介

무엇이그손을검도록햇나?

두노는면석하야 향학열은끄러올르는데 가세가극빈하야 남과가티 책을살수업는 령민한소년이한갓공부하고십흔 욕심으로마침내서점에서 책한권을 섯들은손을내어 훔치라다가 경관에게체포된사실이잇다

이십륙일 오후두시경에 시내본정(本町)이정목 군서당(群書堂)이란 서점에서 시내모실업학교일년생 오복동(吳福童)(十七)=假名=이라는소년이 친척되는가속에서 영화사전(英和辭典) 한책을 떨리는 손으로 훔처 내라다가 점원에게 발견되여소관 본정서(本町署)로 인치되엿는데 동서 학생계(學生係)에서 상세히 취조한결과 그는금년봄에 시내모보통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엿스나 가세가극빈하야마음대로녀는한푼부족를하지못하고시내모실업학교야학부를단이던중그학교에서도여사성적은들중하나 돈이업서 남이다사는 회사전한권을 살수업서 배호고 십흔 어린마음이 끗가는 남어지 드듸여 그와가티 미워할수업는 범죄를한것이 판명되엿다 이사정을안 본정서고천(古川)서장은 이를 가긍히생각하야 시내 모회사급사를 주선하야주어 낫에는 일을하고 밤에는 여전 무사히 학업계속로록되엿다한다

一圓以下額典當

西大門管內만三千戶

其中에는十錢廿錢額도多數

典當舖에나타난大京城貧困相

대폭도로와고층건물이 날로늘고 상공업이 발전되어간다는대경성의빈곤을전당포에보이는일면상=얼마전시내 서대문경찰서에서는 관내각전당포를조사한결과 일원이내의전당을 잡힌것이삼천호라는놀라운수자를발견하엿다 즉삼천호에 포용된인구가적어도일만오천명은된것으로 그일원이내의 금액가운데는 오십전삼십전짜리 도상당히만헛다고한다 그러므로 이상의수자로 미루어경성의전인구를사십만이라고하면 그중의십만명은 일원이하의전당을잡혀서야사러갈수잇는동정의거민이것을알수가잇다

아홉시경에 시내태평통(太平通)이정목이십일번지 정상(井上)질

歷史기픈平理院 現鐘路署를撤毁

基地의一部는民間에拂下하고 工費十三萬으로新築

일즉부터 경찰방면의 숙제가되여잇든 종로경찰서(鍾路署)청사의 신축문제가 닥처오예산편성기를 알두고갑작이구체화하야이십륙일오후 다섯시반경에는지전(池田)경무국장이 종로서에와서 청사의 현상을일일이시찰하고 도라가서 필경개축의내락을한모양으로서 이십칠일아침에는 목촌(木村)종로서장이좌백(佐伯)경찰부장을 방문하고이에 신축예산에대한 구체적토의를하기까지에 일이진척되엿다 대체로지금생각하고잇는 총공비는약십삼만원으로서 방금시설등까지 한라고 한다현재의 청사는 지금으로부터 이십륙년전에 당시구한국(舊韓國)유일최초의 재판기관인 평리원(平理院)으로 건축하야 그후에경성재판소로 개칭하엿고 소화사년구월에 재판소가 정동(貞洞)으로 이전해가자 그뒤를바더가지고 종로경찰서가 이전하야 지금에이른것인데 이건물은 실로합병이래이러난 대소재판사건과 일일히기픈관계를 가진건물이다 그런데 현재의기지는 이천일백평이라는 굉대한것으로서 사실에잇서서 불필요한 그밖의좀은 흥은 민간에불하하게 될지도모른다고한다

七歲女兒轢殺

【泗川】지난이십오일오전열시경 삼천포읍정송모(定松某)의소유 경남칠팔칠호화물자동차운전수김재열(運轉手金在烈)은 삼천포에서어물을 만재하여가지고사천면수석리(水石里)부근을질주하다가 마침로상에서놀든칠세의녀아를치여즉사케하엿는데 죽은녀아는평화동(平和洞)、최원조(崔元祚)의삼녀로서 전긔로상에서놀든중 달려오는자동차를피하라다가그와가티참사한 것이라하며 가해자인운전수는방금 사천경찰서에서취조를밧는중이라한다

官舍專門大賊 七名一團逮捕

符號로서惹名使用

종로서사법계에서는 수일전부터 경동래 부산(釜山)출생의 정덕만(鄭德萬)(七)외 일곱명일단의 판사전문의 대절도단을 검거취조중인데 그들은교묘한 비밀조직을가지고 각자의일홈은 서로감추고 부호를가지고 불르고잇서서 한사람이 검거될지라도 다른도당은 안전하도록 꾸며노코 약이년전부터 절도를시작하야 위선대구(大邱)에서 관사만 엽세꼿을 습격하야 일천삼백여원어치를 훔쳐고 대전(大田)에 들려서 역시 관사만 전문으로 절도를하고 얼마전에경성에 올라와서 열여덟곳의관사에서 이천사백여원어치를훔쳣다는것이다

조사한결과 그단원의한명인김일수(金日守)(二四)는지난봄에 룡산서(龍山署)에 체포되여현재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이면서도 다른도당의 일은 일체루설되지 안엇다고한다 옥에서 십분에불상당한 물건을 거당삼히라다가 소관본정서(本町署)원에게 체포된 스리범이잇섯는데 그는전남담양군무정면오례리(潭陽郡武貞面五禮里)사는리순긔(李舜基)(二二)로서 이십일일 오전두시경에 경성역(京城驛)이등 대합실에서 녀자용『오페라빽』한개를훔처 그속에든회중시계외 수점시가약오십여원어치를절취해먹은외에 또일건의절도를한 것을자백하엿다

素砂巡查殺害犯 上告도死刑判決

작년오월십이일밤 경기도부천군소래면(富川郡蘇萊面)공립보통학교장의 사택에 드러가서 금시계를 훔치고 다시 소래경관주재소류리(柳根)순사부장의 사택에 침입하야 물건을 훔치려다가발각되여 류리순사를 칼로찔러죽인 홍경석(洪慶石)(二四)은 경성지방법원에서나 경성복심법원에서 모다 사형의 판결을받고고등법원으로 불복상고하엿든바이십칠일에 희두(喜頭)재판장으로부터 상고기각(上告棄却)의판결이 나려사형으로 확정되엿다

少年漁婦溺死

【漁大津】지난이십사일오전팔시경 경성군어랑면송신동신포리(鏡城郡漁郎面松新洞新浦里) 함기술(咸奇述)(一六)장남중남(一三)은 그근바다에 명태어잡이를 갓다도라오는길에 적은노가떠러진것을건지려다익사하엿다한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黃海南部의 低氣壓은 東進하야 朝鮮內를 通過하려고하야 天津의北에잇든 低氣壓은거진 움지기지안는다 高氣壓은本州의東海로부터 關西方面에퍼지고잇다 三南地方은 晴天이고 其他는흐렷스며 本州西部는降雨朝鮮海峽은 風雨가좀强하다

오늘밤은 흐리겟다 明日은 흐리고多少비가올모양이며

最高 二八度四
最低 一六度九
正午 二五度六

運動競技

日本職業野球團 百五戰七十三勝

【聯合發着二十四日發】米國各地를轉戰中에잇든 日本職業野球團은 지난二十三日로서 米大陸의全試合을마치엇는데 總成績은百五戰 七十三勝、一無勝負、三十一敗이다 一行은二十五日桑港出帆의太洋丸으로 호노루루에向하엿는데 同地에서 七試合을行하고 七月十五日横濱入港의 秩父丸으로 歸國할터이라한다

一選手養成의秘訣

米國에잇는歐洲遠征팀의『트레이너』君에前陸上選手『하리ー·힐맨』君이選擧되엿다그는一九〇四年第三回올림피(聖路易)에서四百米、低障碍、中障碍三種目에 優勝한外에도 前後八年間에 互하야三十七의選手優勝을 둘자지한名將이다、其後『따ー드마우스』大學의陸上指導者象『트레이너』이엇다 그가選手를 養成함에잇서두가지秘訣이잇스니『過勞를 避할것』과『選手의心理를잘調節하야 僞活한유ー모리스트』로그의指導를 바들때조選手들은愉快히試合할수잇슴것을豫期한다고

遞信漕艇大會

遞信協會主催 第四回遞信漕艇大會는 來二十九日(土)午後一時부터 漢江人道橋下 코ー스에서各課對抗競漕를 行할터이라한다

女子百米快記錄

【聯合센트루이스發信】六月一日『센트루이스』에서行한 女子陸上競技會에서 十七歲의少女『헤렌스테벤』孃은 百米를十一秒八로달리어『와랄쉐비취』孃의 世界記錄과 타이記錄을作成하엿다 그리고『스테벤』孃은 二百米에二十四秒四의 米國新記錄을作成하엿다

社屋新築 落成記念讀者慰安大會

七月初旬五日間本社大講堂에서(時日追後發表)

順序 管絃樂、째쓰밴드、流行歌、테너ー獨唱、新舞踊、僧舞、寸劇、레뷰ー

朝鮮日報社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番)

보양 젊어지는보약은 가이자가제일이요

효력 최극상 최특등、동서양에제일유명한약의정분 만 만히는이답니다

사람이 제일몸이건강하여야 고집흔일을하는데 근래는튼튼한 사람이적고 약한분이만어진다。신경쇠약이니 양기부족이니 원기부족하야 마음대로일을못하게되엿다。이것은문명이발달됨에따라 一생존경쟁이 심하여짐으로되는 불만히쓰게되고 애를쓰고번민이 만어지고함으로 자연히원기가쇠약하여 빨니늙게되는다。따라양기도업고 최후에는신경쇠약이니뭐이니하고 오래못살고 세상을 버리게되다

스나 백살까지몸이튼튼하고씨가왕성하여이사회에서 하고십흔일을활것이인생의향락도 영구히잇슬것이다。그런고로다년연구한결과 먹는약으로보약보양하며로인도원기가 왕성하야청년과가티될수잇는좋은노초라할수잇는것을발명하엿다 지금보듯잇는명식약이니호르몬약이니하는것은 일시적으로생식기만흥분식혀 약하여지고마는데이가이자(KAIZA)는 동력인원기를왕성하게하는 시에 보양보음을 히야생식기를자연히 흥분식히는 작용으로원기와 양기는정정왕성하여질뿐이요 쇠약하야지지 는안는다 류행병을 앓엇던지고 옹고통하고 또선천후천의으로몸 이약하야 양기부족하고원기업고 신경쇠약증이엿는분은 속히가 이자를 쓰시오。양기부족、음위 신경쇠약、비혈증、패긴쇠약 속히되는분、불감증、피로한분

『약가』중종엔十원、경증엔五원、송료는 대금인환은 삼십전 선금무료(약은환약이오)

린질 대하증엔 구로벨 제일속히듯습니다

효력최극상 최특등、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독일약(해루미도ー루) 도만히들엇고 세계적대신발명한약제도전보담만하더는엇답니다

◇남녀만성리질、부인적백대하증、남녀내증、오줌소태、월경고르지、한데며 하혈(下血)등으로 별치료를하야보고 별별약을써도 무효하야 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여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 안심하고제일먼저대신발명하신(KUROBEL) 구로벨을 쓰시오 구로벨을늣겟는 약이다이러한자신(自信)을어든 결과 환자의안심과신용을엇가위

二、이약은 다른약과가티지리하게오래안먹고 고칠만성증이라도 일주일내로효력을보고

三、림질약치고 위장이안상하는 약이업는데 구로벨만은조금도 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조금도 업슴으로、위장이약한분이 만이먹어도트림하나안난다는말은 효험본여러분의 찬송하는것이오 그런데 이약이속한리유는 조선이끈난한한소치엿다

『약갑』완고약성에九원、만성 타부인용에五원、대하증、냉병기 수태에三원、지방선금무료、대금 인환은삼십전 (五원이나十원이나 다일주일분)

시하야 장담하오니 안심하시고쓰시오

一、여러해된고질 림질과 대하증은물론、림독성 으로된방광염、고환염(산증)섭호선 염、자궁내막염 란소염 라팔관 염、프두협착증등에좃코

매독에는 푸로다ー가제일이요

효력 최극상 최특등、주사이상이라한다주약을더만 히늣어다

매독은 선천、후천두가지로선조유전또는전염으로발생하야대개 다사르바르산(606)주사멧대 하여겨우일시적으로든국녀지지만 완치가잘안되고여러번재발함으로

이 상에서매독이업서지지안함을 보도 도류백륙호가지고는불완전 한것이 중명된다그래서이불완전한 점을업새기 하야주사가아니고먹 는약으로일주일에효력을볼수잇는 매독약푸로다ー(PROTER)를 발명하엿다여러가지로치료하여도 아니낫고고통하는분은곳시험하여 보시요안심하시고엽여마시고쓰시 오장담합니다。

어린부인도쓰시요。○남녀의국부 가 허럿스며 가려우데는、이허 미하고 팔다리가 쑤시고 목이 쟁기고 머리가 빠지고 여기저 기종기가터지는데、도창병김창코 허는데 등에신효합니다

『약가』완고중七원、중증五 원、경증三원、송료대금인환은 면삼십전(약은환약이요)

만일 무슨약이든지 이상일쓰셔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노병에안맛거나 광고와틀니는 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제일근서양품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 (그전신덕당약국부)

金銀鑛石分析

依賴分析을取扱함

料金

一 鑛 金 二 圓

二 種 以 上 每 一 種 增 一 圓

料金(要先金)

平壤府鱗浦里五一 朝鮮鑛業株式會社分析部

電話 長 一二三 六番 振替京城 三二 七九 八番

筆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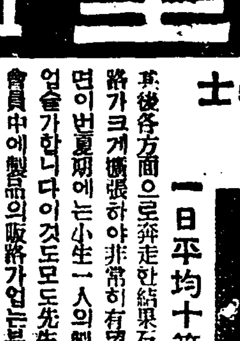
遠近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할수잇는趣味 와實益을兼備한生活의手段인學生、勸人婦女子에最適한 休暇利用은 이筆耕이오니 郵票三錢을添付하야申込하시오 詳細通知함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有望한職業

中野理學士(米國) 責任指導

一日平均十箱의賣行



其後各方面으로奔走한結果石鹼에크림에그販路가크게擴張하야非常히有望합니다이때로가면이번夏期에는小生一人의製品으로는당할수가업슴니다이것도모도先生의德인줄압니다지금會員中에製品의販路가업는분이잇거든언제든지販路의相談을하것사오니各會員에게通知해주십시오지금實行高一日平均크림十五疋드石鹼石油箱으로拾箱입니다(宮本謝)

女子라도一日 十五圓以上의賣上

『女子로무엇을할만한일이나』하고지안사람들이 躊躇할도只지안코、貴所의通信教授를밧아短時日에훌륭히製法을會得하고、試驗的으로만든石鹼을집안사람과近處사람에게난앗엇더니 거품이잘일고때도잘빠저매우조타는稱讚을듯고、나는今日까지에이러케기쁜일을經驗한일이 업슴니다。現在에는雇人을둘이나두고一日에五十錢以上十五圓以上이나팔림니다。아직不慣가작어서注文에쫏기지경임니다近近謝禮兼親히先生의指導를밧기爲하야上京코자합니다。

小資本新職業으로서의 粉末石鹼의製造

粉末石鹼은無限한需要와廣大한販路를가지고製造者가적어서將來有望하다。都會地方을不問하고누구던지簡單히할수잇고、크게버리되面積도小規模로자면月三百圓의利益을엇기는決코難事가아닌가장새로운職業이다外에數種의利益만흔各種製造法을獨特한教授法으로、通信教授는一週間、實地教授는三日間에速成教授하야永久指導後援함

好期는只今!!

實驗原料의大特典잇음 無料進呈

―(說明書無代進呈)―

中央化學工業研究所

名古屋市東區西瓦町一六五

小資成功은이것이은

二十六日より特別大公開 『ボレロ』の旋律と興奮!の再現 奇才ベンヘクトの映畫界進出大野心作!待望のパ社特選名畫に名篇同時封切の大英斷!

上映順

一、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監督 ベンヘクト 主演 クロードレインズ

市『近くは奇傑『パンチョ』をとのせる巨人ヘクトが新魂を傾注した此ぞ映畫界に革命の嵐を捲起す本年度最大の問題篇!

名篇『暗黑街の烈役』『犯罪都』

情熱なき犯罪

二、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監督 マリオンゲーリング 主演 ジョージラフト キャロルロムバード

ルムバ

キューバ島の青白い波に砕け南國の鼓動『ルムバ』椰子の葉がゆれる情熱のリズム!南國の香りを振り撒く忘我の境!情熱の曲ルムバを踊り抜くボレロの名コンビと新人マーゴの魅力

愈愈次週封切の二大巨篇! 其の夜の眞心 海を嫌ふ船長

六月二十五日より短期特別公開

故桂章太郎主演映畫

明暗風流陣

鎌倉特別督出演 大都超特作時代劇

原作指導 原田...

監督 ...

キートンの麥酒王

笑らの大王笑はぬ笑らのバスター・キートンが年に一度の大殊勲ピール業のみなさまへ捧ぐる滋味萬腹の爆笑大喜劇

メトロ超特作全發聲日本版 エドワードセヂウイツク監督 バスターキートン主演

ワユミーデュラント 共演 ロスユーアテス コイリスパリィ

頓馬面のキートンのんきさと酒の キートンさてビール屋を開業して素晴らしい戀と冒險とナンセンスの傑作

大都映畫超特作盛岡大活劇 ハヤブサヒデトプロ代表的傑作 監督....大江秀夫 ハヤブサヒデト主演

空飛ぶ糖糖玉 琴糸美喜子、大山デブ子共演 若月、郷夫高村榮一、宮城浩二

櫻井町 ...館

家庭

에기가무엇을 입에너헛거든?
너무서둘지말일
「아이머니」소리는위험한짓 황겁결에 꿀꺽삼켜버린다

어린아해들은 무엇이든지손에닥치는대로입으로넘처드립니다。그래서동전이나구슬이나 심하면 바늘갓흔것을 먹어서 잘못하면 그것으로 생명을 빼앗기는수도잇습니다。그러면 이러한 위험한때에 부모되시는분은 엇더케해야할 것인가를말슴하겟슴니다。

만약 어린애가 무엇이든지 입에너엇거든절대로 황급하게날뛰지말고 침착한태도로서 그러나 빨니 어린애의 얼굴을 밋흐로향하게하고두손까락으로 얌전하게입을벌니면 에너엇든것을 자연이뱃터냅니다 그러나어린애에게 무엇이든지입에 너을때에혹히 어머니되시는분은

깜짝 놀나면서『저것봐』한다든지하는 큰소리를지르면 어린애들은 그소리에놀나서 입에너헛든것을 도리혀 꿀꺽삼키는수가만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식도로넘러갓슬때는 그래도덜한데 잘못해서 긔관(氣管)으로 드러가서 큰일을내일때가만습니다。또 엇든분은어린애를홀뒤노코 손꾸락을너어서 끄집어내려고나하는데도엇스나

이것 은도리혀 목구멍으로넘어가기 쉬웁게하는것이니 반드시 어린애의얼굴을 밋흐로 향하게하고 뱃허내도록하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목구멍으로 넘어간뒤이거든 고구마나 감자가튼게라든지 배추김치가튼 섬유(纖維)가 만흔것을 먹입니다。왜그러냐 하면 바늘이나 고기뼈대귀 가튼것이 목구멍이나 식도에걸니든지 또는

벌서 위에드러갓슬때 유산는것은 이런것 몸속에서 아모위험성업시 대변속으로 무뎌나오도록하는것입니다。그럼으로 대변을잘검사해보고 그래도 못미덥거든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동전이나 구실가튼것은 빼족하지도안코 모도 나지안엇슴으로 대개는 아모일업시 대변에무뎌나옵니다。

시간리용을잘해야 한평생이 뜻잇다
하로일도시가정하고『어더케…』
살림사리의『따이아그람』

사람의일생이 결고찌르다는것은 그사람의사업이 크고 적다는데서 결정되는것입니다。그럼으로 하로를 살어도 남의갑절을산것만치는 살수잇고 백년을살어도 남의하로사는분수도 살지무한셈이 되는수가 잇습니다。그러면 사람의일」을 가티잇게살자면 무엇보담도 하로라는것을 가장의의(意義)잇게 또는 유용하게 쓰지안어서는 안되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가장중요한 하로라는것을 아모의미도업시 그저허비하다십히해서 보내는례를 얼마라도볼수잇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첫재시간에대한 관념이업는때문입니다。하로 스물네시간에 여덜시간만자면 충분한것이니 남어지 열여섯시간을 가지고도 날마다 시간에쪼달니거나 별로해노은일이업다면 그것은바보가안인 다음에는 시간을리용할줄모르는때문입니다。

「시간이란」 실로 이상한것이여서 잘마련하면 만흔일을 하고도 얼마든지 여유가잇는것이고 리용을할줄모르면 하모하는일업시 쫏길니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엇더케햇스면 장차는시간이외의 만흔시간을잘리용해볼가하는 의미에서 가정시간표를 하나만드러 여러분의압해 맛치려하는것입니다。물론 사람이란 긔계와가티 움직일수는업는것이니 이시간표대로 꼭하실수야잇겟습니가마는 그래도 이러한 시간표를중심으로해서 간편한 시간표에 대한 습관을드리면얼마간은 도음이잇슬것임으로 말해드리는것임니다 물론이시간표는

「중산계급」 에부리는사람하나두고 자녀를 두셋쯤두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마든것입니다。

첫재 자는시간은 밤열시부터라면 그잇든날 오전여섯시에는이러나야 수잇습니다 그래서 대개사무보시는출근시간이나 학교상학시간이 여덜시부려이니 일곱시반까지 한시간반동안은 방안을 치우고 아침밥지어서 다먹어맛치기까지 녁녁합니다。아침밥을 짓는데 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는 그전날밤에 미리쌀을 씨서두엇다가 밥을지으면 시간도

「절약이되」 고밥맛도 좃습니다。일곱시반까지아침밥을맛치고난뒤에는 오전열시까지서 려지와돌안소제와 세탁가튼것을 합니다。이것을맛친뒤에는 열한시까지 한시간동안쉬실수이고 열한시에서 열두시까지 점심밥을가벼게맛칩니다。그리고 다시 삼십분동안만 쉬이십시오、그다음 령시반부러、세시까지 엄반가사와 바누질가튼것도하시다가 학교가파해서 애기들이도라오거든 네시까지 밧갓헤서놀게하고 그한시간동안은 준비시간이라고해서 외출을하시든지

「물건사러」 나가신든가 지하십시오。그리고 네시부터 다섯시는 애기들의 복습을식히시고 다섯시에서 일곱시까지에 저녁을 지내시고나서는 아홉시까지 외가족이 다복하고 화락하신이야기도하시다가 아홉시가 되거든 애기들은 자게하고 두분이살님에대한 어야기가튼거라도하시다가 집안단속을하고 열시에취침하시면 아주 리상적인 가정이되겟습니다。반드시 어때케하시지안트래도 될수잇는대로 하로하로 따라서 형편과사정에 외살님사리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놋코」 처리하시도록 해보십시오 흘른 간간이 가다가 얀넘가려 어려나는 내외분의 사랑작흥하시는 시간은 여기 넘지안엇슴니다。

家庭醫學

피가래에 에메진사주

문 여십이세된 귀혼 남자인대 신체는건강한편이나 오륙년전부터 가래가서하며 검은빗가려가 석겨나와 이상히여이때종작년부터는 몸이끈하면 혈담이석겨나옵니다 의사에게진찰하니폐지스토마라하며 가래를검사하니 확실이 그런다고하기로 에메진주사를 삼십회가량한이 조타하기로 시험한결과 조금도효과가업고 한혹개월섭리는 귀가울고소리가나는것갓습니다 혈담과 이상증세에 엇더한 방법을하오야 낫게습니까 속히하교하야주십시요(谷山生)

답 폐지스토마임이 확실하나『에메진주사를 삼십대나한거슨너머 과도하오며 당신과가리다른증세는 아마에메진으로이러난 부작용이나 안인지도모르겟습니다 에메진주사난보통하로셔하여 십사대까지함이 조코그이상계속하라면 한달후에 할것십니다 십사대이상계속한은 중독되기쉽습니다 당신증세에대하야 다른방법이업고 역시근치방법으로에메진을 이상에말한방법으로 치료케하시고 시시로엽쿠니카르시움의 주사를받고 네오론이란 강장제를 복용하야보십시요

이상한병입니다

문 복부와흉부공포가 뭉뭉하고 답답하야압호며 공긔가든것시 드려갓것갓습니다그것이 머리로가면 머리가엇슬엇하고 피부로가면 전긔에접한것과갓치 저린니다(警門 通患者)

답 무상병인지 당신이말한증세로난알기어렵니다 한번내과의사에게진찰하시고 혈액을한번검사하야볼 필요가잇는술로생각됩니다(大學病院伊藤內科朴秉來)

曆

六月廿八日 (金) 舊五月建壬午(大)廿八日 乙亥·火·亢·執
●祭祀·에宜함
▲乞種 七日(舊五月初七日)
▲夏至 二十二日(舊五月廿二日)

아동훈육상으로본 인형의가치
플각씨를부흥식시다

조선사람은 가정의 오락이업서 그가정생활이란 단조하기짝이업습니다 더구나 어린이들은 그가정에서 장난감이업서 그저 떼나쓰고 울기나 하고잇는일이 적지안습니다 이즈음와서는 이런 경향이 다소완화되나 아죽도 작난감이나

인형 가튼것을 적게가지고 놀어 대개어린이들의 생활이 단조합니다 인형(人形)이란 세네살된 남녀 어린이들이 갓고십퍼하는 본능으로써 더구나 게집애가 인형을 갓고 노는것은 장차 어린애를 사랑할 어머니의 본능의 시초라고해도 무방할것입니다 그리고 이인형과 노는 본능은 위선 채롱이나 쿠리를만드는데

숭내 서로 내게되고 따려 예식육아(育兒) 교육(敎育)등의 숭내를 내며장차 어진안해가될 준비공작(?)을 하게됩니다

그러고 그인형과 노는동안에 먹을것을주고 옷을입혀주고 머리를 짜고 강보를대어고서 노래를 불르며 인형을사랑하며 자연히 그 어머니는 장차 사회에 나아가

사 의특성을 키우는방면을알어효과 백퍼센트를얼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심과 친절한마음과또 희생적정신을 그인형에의해서 훈련됩니다 그것은아ー모리 박정한 ○○게집애도 아ー모말도 하지안는 침묵의동모인형에대해서 박정할수는 업슬뿐더러 자연히 친한

마음 어 생기게됩니다。그러하기에 누가충찬해주는사람도업시 자긔가 자발적으로 그인형을 사랑하는마음이 생기게되므로 이는 도덕교육의 하나가 될것입니다。그러고 또 인형의 복장은 대개 어린이들이 모범되리만치 예의를 가춘것이므로 자세가 조흔 인형은 자연히 어린이를 가르치이 만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조선 사람의 인형이 적으니만치 다소곤난할것이므로 이에대해서는 어린이교육에 종사하는분들이 노력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사교성이라든지 협동적정신은 인형과가티 사이조케 놀므로써자연히 습관이될것입니다 그뿐더러 어린이는

인형 괴놀면서 흑더운때면 더지나 안허할가? 치운때면 치위는 타지안홀가? 또 흑어떤때 다치면아프지나 안허할가하고 여러가지 상상을 하게될것입니다 이상상력을 널피는것이 그일이나 사람에게 필요할가는 더말할것도업습니다 그러므로 인형교육은 오늘날 절대로 필요한것이니만치 각가정에서는 인형과 완구로새 어린이의 동심세계를 아름답게꾸며주소서

유ー모어小說 望夫石【六】
金熊超 作、畵

復習 (四)

냉면앞을 잡시들어 답답하게을 축이고、그위 동생이를 너머서니 올올장찬한 야멸룰이을 밧틈으로 저편언덕에 정기와업힌 고착이 나섯다。

『보십시요 뭐 업니까』

재호는 압가슴을 헤치고 서늘한바람을 바터드리면서 뒤에오는 유나를기다렷다。

『삼막사가저기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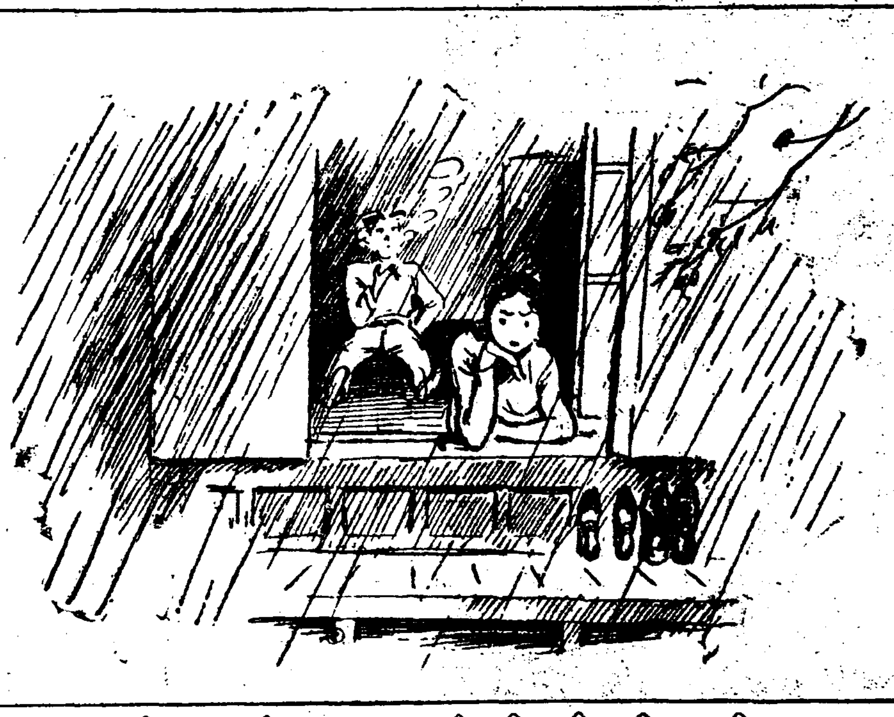
인제는 사릿다는듯이 유나도 손수건으로 코스등과 이마의 땀을 놓렷다。

『저깁니다、경치가어덧습니까』

『조혼데요』

구롱소장이 지나가느라고 양지짝에서잇는 법당들이 잠시어두어젓다 밝어진다。——

두사람은 절에이르럿다。팔두방엽혜달린 조고마한방에 드러압뒤창을 훨히 여러노코 피곤한다리를 겨우 쉬엿다。경치를 탐내어왓것만 쉬는자미로온것처럼 다시 이러설생각은 나지안헛다。



점심밥을 식혀노코 재호가 세수를하려나간사이 유나는 얼골의화장을고치고나서 무엇을 잡잡히 생각하고 잇섯다。——무슨생각일까? 알사람은 유나자신뿐이다。

바람이분다。악가보다 더세차게분다 구름은 비상소집이나한듯이 몰려든다——

재호와유나가 의조혼 내외처럼 겸상을밧고 막 밥술을들잡인데 주먹가튼 빗방울이 퇴ㅅ마루로디리첫다。

유나는 놀란듯이 숫가락을바릿대에걸처노핫다。

『큰일낫네!』

『큰일날거야 엇습니까 온대야 소나기겟지요』

재호는 얄밉게도 태연히안자서 자작한맥주스잔을 드렷다。

유나를 절간에 모라온책임은 자기에게잇스나 비오고안오는것과는관계업다는태도엿다。

『어더캐요?』

『곳그치겟지요 기다려볼밧게잇습니까』

『악가 내가에서쉴때 되도라갈걸그랫서요』

『지나간일을 이야기해서 소용잇습니까? 어서 진지나마저잡숩시요』

『패ー니 선생님말만듯다가 이러케됏지요뭐』

유나는 원망하드시 재호를헬긋처다보고 수까락을 다시 드럿다。

『더잡수시지 왜그러서요』

하는 재호의 권고도 저바리고 유나는 바릿대의 밥이 삭분지이나 남엇슬때 수시가락을노코 마럿다。

『배불러 더못먹겟는데요』

『양이 그러케 적으서요』하고 재호는 한그릇밥을 다먹고도모자라서 유나의 남긴것을 밥이 나더러갓다。

밥상을 물리고나니 삼막사의 볼일도 다본셈이다。그러나비는 본격적으로 퍼부어 도라갈길을 막고마럿다。

『왜안끄칠까』

유나는 비만끄치면 금방뛰어나설듯이 모자를 머리에언꼬미다지 둑겁다지를 지기고서잇섯다。

재호는 식곤스증이 생겻는지 벽에몸을기댄채비스듬이 누어담배만피우고 잇섯다。

『설마 그칠때가 잇겟지요』

『그런소리는나두할줄안답니다』

유나는 혼자토라젓다。이상야릇한심경에서 남남인두젊은 남녀는 한참동안 말이업섯다。비는점점 더퍼붓는다。

『자ー큰온다 잘온다!』

심술 굿게도 재호가 침묵을 깨트리고 한다는소리가 이것이다。

『오기는 뭐이 잘와요』

유나는 약간상기된얼골로 재호쪽으로 고개를 돌렷다。

『비가와야 농촌에서도 먹고살지요』

재호는 유나가 혼자서 봄으라 프르락하는것이 자기에게는 조곰도 영향이 미치지안는듯이 이죽이죽 입만놀렷다

『난 이 조은 몰랏서요』

유나의이말은 천기를탓하는말인지 재호개인을 워망하는말인지? 재호의처지로서 해석한다면 자기가홍속스러운밧게엄는것이엇다。

『안자서 조곰만더기다려보십시다……유나씨를 모시고온책임은 저에게잇스니까 모든것이 다잘못되고 죄송스럽습니다。비가퍽 올줄을누가아럿스며、어러케되리라는것을 알고야 모시고왓겟습니까。……이것도운명입니다。오비이락으로 오해를하기시작하면 한이업지요 저를 납븐놈으로아신다면 변명할도리가업서 비끄치기만 빌밧게업습니다』

재호는 자기자신을 죽은솟은하다거나 비열한인간으로생각지안는다。그러나 지금이말이 자기의본정신에서나왓는지 안나왓는지얼른판단할수업섯다。

『운명이요?』

유나는 운명이란말이가슴에걸렷다。

二十七日 (木曜)

◇午後六時三〇分 横笛山獨奏 一、솔베이그의노래…그作曲 二、他鄕의달…헤이스作曲 三、旅愁(英國民謠) 四、故鄕의廢家(英國民謠) 五、望月草…華川作曲 六、夜想曲…구노ー作曲 七、아침…弘田龍太郎作曲 鄭鐘灝 피아노伴奏 金吉洪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延專講師 崔 晃
◇同八時 講談(一) 李光洙
◇同八時三〇分 빠이올린獨奏 一、소나타G短調…타르티니作曲 第一樂章 아다시지오第二樂章 프레스토논、트룹포 第三樂章 라르고 第四樂章 알레그로、큰모토 二、미누엣토…복케리니作曲 三、人形의춤…폴되니作曲 四、푸시다의女子의노래…후비이作曲
◇同九時 伽倻琴並唱과民謠 文學華피아노伴奏 OL、삐커 一、併唱 (가)名妓名唱 (나)花華打鈴 二、民謠 (가)陵籠鳥 打鈴 (나) 자진打鈴 (다)자진방아打鈴 (라) 용드레打鈴 (마) 夢金浦打鈴 金玉眞 細笛 高敬德 杖鼓 閔完植
◇同九時三〇分 京城坐唱 一、遊山歌 二、船遊歌 三、小春香歌 四、京山打鈴 五、방아타령 張香蘭 孫瓊蘭

二十八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바라령 金玉仙 鼓手 韓成俊
◇同二時 婦人의時間 家庭과料理 (二) 成 義 敬
◇同六時三〇分 童謠 가짜將軍 崔 仁 化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延專講師 崔 晃
◇同八時 兒童衛生座談會 世富蘭偲慈母會長 金 義 惠 京城府民病院小兒科長 李先根 梨學保育學校 徐 恩 淑 世富蘭偲聯合醫院小兒科 趙東秀 外放送部員
◇同八時四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사설時調 三、지름 大笒 高 永 基 朴 鍾 泰
◇同九時 獨唱 一、悲歌…마스네作曲 二、그대꼿과갓치…리스트作曲 三、漁夫의노래…달리아꽤리作曲 四、아델라이데…베ー벤作曲 安 輔 承 伴奏・T・B・스루데너ー
◇同九時三〇分 歌曲 一、羽調初擧 二、羽樂 三、環界樂 四、界樂 五、讀 金蘭珠 金春姬 洋琴・金相淳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宇

二十九日 (土曜)

◇午後〇時五分 재비가外 一、제비가 二、노들江邊 三、방아타령 四、오돌독 五、靑春歌 姜梅紅 細笛 姜鶴秋 笭琴 李忠善
◇同二時 婦人의時間 家庭科料理 (二) 成 義 敬
◇同六時三〇分 吹奏樂 救世軍靑年院團드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三) 延專講師 崔 晃
◇同八時 講演 腹痛에對하야 醫學博士 鄭 求 忠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그女子의秘密 全一幕 配役 淑…沈元子 申社長…金演實 鄭…金仁子 金氏…李流星 辯護士…金壽喆 放送劇新人會 指揮 李如水 解說 鄭月城 効果 孫 一 松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沈淸歌 申 錦 紅 鼓手 丁 元 燮
◇同九時三〇分 流行歌 一、月의出帆 二、뭘아가씨 三、新羅谷山 四、달님과아가씨 五、七夕의밤 六、江村悲歌 李 蘭 影 伴奏・오ー케・레코드 뮤ー직

少年詩人金君山論(五)

君山의交友詩 (一)

—湖西友李日進에게寄한詩信—

李殷相

世壽가 [illegible]하기때문에君山이 오히려[illegible]과 [illegible]家을사랑하엿지마는, 거기서도 悲心의知己를바라고 기다린것은 그또한人情인것이다。

그러면 이孤獨한 詩人이 누구를 사귀고 그리엇던가。이제 그의 詩篇을 通하야 멧사람의 友人을 列擧하리라。

그가 十五歲의때에 漢湖에서 讀書하며 가을의 어느날멀리湖西의地에 가잇는 李日進(名은 進)으로 부터信書를밧고 거기答하야 詩를지어 그에게로 返信한것이 잇스니 그詩는 이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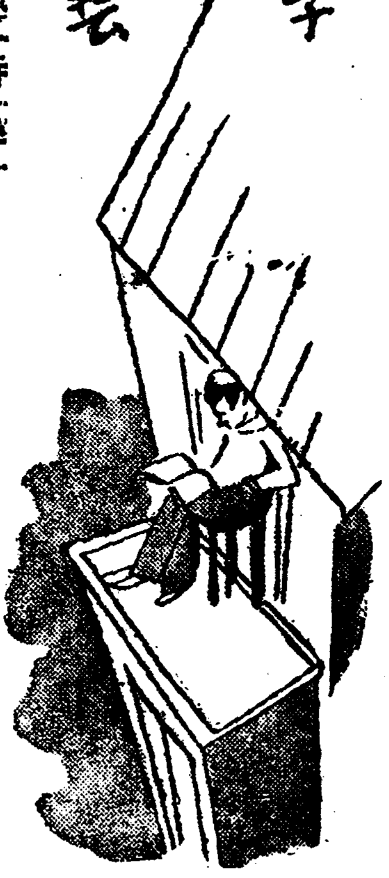
和寄 李日進

내생각 가는곳
그리노라고
슬프다 밧나즈로
근심뿐일네
생각이 어느곳에
잇다말인고
湖西땅 가는길이
멀고멀고나
여보게 옛날일은
이즐수업네
가치올 강우에며
놀지안앗나
낙대쥐고 모래우에
안잣던그날
조각배에 술대싯고
놀던그날
취하야 楊柳밑에 장이들엇고
노래하며 石逕길로
돌아왓는니
놋게야 사귀엇다
뉘가말하나
마음맛는 내벗이
도업스리니
어떠타 여기다
남버려두고
[illegible] 내홀로漢湖人가에
머물러잇서
아숙저녁 갈에기만
보는밖이나
고요한밤 오둑허니
홀자섯스면
溪고봐다 달는듯
잡우에뜨고
포구人가 모래판에
달빛이를때
밤안개 나무우에
내려안는니
못잇은 그대생각
그지잇스랴
눈물만 부질업시
가슴쥐심져
어떠이 내방문을
두드리기로
놀라보며 하찬물을
떤저주노나
바가이 피봉뜻고
읽어보노니
글죽에 무슨말이
잇섯든고
떠난지 오래간만에
먼저쓰고서
그아련 꿈에뵈
써보냇고나
압페라 꿈에그대
날보단그날
나도한 꿈속에
그대보앗네
정성은 이러도
통하건마는
나뉘어 물은어이
못만나는고
절편한 저놉판
바라를보게
박마다 가을주수
한창이로세
지금 이조흔때
노치지말고
가리와 글읽으세
어서오거나
고개를 빼어들고
멀리바라며
내마음 목마르듯
그대그리네
가할가를 생각도록
잘쓸줄고서
銀河水 도는것만
바다보네。

(原詩)

今我[illegible]、[illegible]、
所思在何所、[illegible]、
却憶昔年日、每共淸江游、
終年坐白沙、[illegible]弄[illegible]舟、
[illegible]何[illegible]、詠[illegible]白[illegible]、
[illegible]、會心[illegible]、
如何[illegible]我去、[illegible]西州、
我[illegible]、[illegible]、
淸宵[illegible]立、皎皎江月白、
[illegible]、汀[illegible]夜[illegible]、
思君[illegible]、[illegible]、
有客忽叩門、投我一素書、
開封[illegible]、書中何所知、
上言[illegible]、下言[illegible]、
[illegible]、[illegible]、
佳期不可失、[illegible]、
[illegible]、我亦夢見君、
知君夢我日、我心[illegible]、
[illegible]、[illegible]、
[illegible]、[illegible]、
[illegible]、坐看天河[illegible]、

(未完)



學藝

[文藝時評]

六月創作界一瞥 (2)

李源朝

그러나批評이라는것은 이러한形象的인作品을問題삼을때에 반드시 一定한論理的系列속에收拾하려고하는것임으로 만약 그作品을分析하고 解釋한結果가 自己의가지고잇는 論理에妥當치안흘때는 그作品의價値는低下하다고 決定하는것이다 그러면 이러한關係를다시말하면 作品은 感情으로서

構成 되는데比해서 批評은論理로서 作品을分析하는것이라고 할수잇슬것이다 그러나 까다라운 問題는 正히 여긔서 發端하는것이니 論理란 반드시 冷徹한論理의一貫만으로서는 包容性을가질수업는것이고 오히려 그冷徹한論理가 一種의副質로서感情을가저야만 그論理가包容性을가지는것이다。가령 過去의 젊은評家들이 群雄蜂起하듯시떠들고이러나섯때에 그네들의

持論 이 冷徹한論理性은 가지지안흔것이아니엿다。그러나 오히려 그네들의論理가 作家를包容하지못하엿다는것은무슨까닭일까? 나는이것을 論理의感情이缺乏된데서由來한것이라고 말하고저하는것이니 그네들이 外國書籍에서배운 새로운文學論이 비록 原理로서는 正當하다고하드래도 그것을

移植 하는데에 自己의것을만들지못하엿든 때문에 그것은 마츰내따스한感情을가지지못하고 冷徹하엿슬따름이엿다。그러나 이러한 論理로서의批評을非難하고 攻擊한作家들의理論은 차라리 感情의論理에 치우친 揚棄는업섯든가。가령 批評家여!공부를더해라 하는것이라든지 批評無用論을主張한것가튼것은

單純 히 感情의論理에 지첫슬따름이지 決코 批評의참다운原因을指摘한것도아니고 새로운批評의課題가되지못하는것이엿다。그러나 우에서말한바와가티 요지음 새로운權威잇는批評의出現을要望하는 이때에 내가 特히六月의創作을評해보려는것은 오히려 조치못한面影을暴露치안흘가두려워한다。

이제 六月中의創作篇數를보면 十餘篇으로 헤아릴수잇스리만치

例年 에比해서 결코적은 수효는 아닐것이다 그러나 그質에잇서서도 이點에相副하는지 안하는지는 다음으로보아가기로하고 우선中央의 「떡」부터보기로하자。이作者의 다른作品을 실닌『金裕貞氏의 「떡」』 보지못하엿슴으로 이것하나만으로서는 이作家의全力量이나 作風을말할수는업스나 이作品은構成的으로되지안코 說話體로서의 一種의 依據的表現方法을取하엿슴으로 線이매우가느러서 緊迫한맛은업스나 그대하거나 序述에잇서서 매우 巧妙한手法을 보혀주엇다。첫재 事件의 推移와 主人公의 行動가튼것을序述하는데에 作者의長點한說明을避하기위해서 여러사람의말을빌려다가 說明하나 그按配가매우

巧妙 해서 一人稱小說로서의 穩藉한姿態를 일허버리지안흔것으로보아서 이作家의個性이라든지 手法의特徵은 스케일이큰題材를 取扱하는것보담은 이러한 線이가는것으로서 天衣無縫의境地를 엿보는데에 興味를 가지는것갓다。그리고 描寫에잇서서도 간간이深刻한데가 잇스니 가령 옥이가 배가곱흐다고 그어머니를 졸르다가 부억으로내려가서 솟밋바닥에부터잇는 씨레기줄기를 집는겨라든지 도사시댁에가서 그집자근아씨가

殘忍 한 好奇心으로주는사탐먹이 飮食을 겻헤잇는사람들이잘먹는다하고들추기는바람에 죽을지살지도모르고 아귀가티먹는장면가튼데는貪慾이나 흔罪惡이라든지 아가씨에게 처하는듯한 人心의微妙한구비를 건드리기도하엿다。그러나 이作品에서 눈가는곳을말하라면 나종에개동어머니가 옥이의떡먹든光景을이야기하는데 밤날뭘면서도 떡을꼬약꼬약 처먹드라는말을하엿는데 이것은 多少 事理에差錯된것이잇다。이런것은 그냥지나처보아도될것이지만

作家 로서 제일注意해야할것은 事件의平凡한구비를그릴때는 多少의事理에 差錯되는것이잇서도 讀者의눈에 띄이지안코 지나가는수도잇지마는 非常한구비를그릴때는 毫釐의差錯이잇서도 根底로보이는것이다。그럼으로 이作品에잇서서는 옥이의떡어먹는場面이 매우重大한契機인데 事件의順序로보아서는 떡을먹는것이 벌서부억에서 더운국에방울말어먹은뒤이라 觀察은되엿슬것인데 밤밤떨드란말이 纖細한맛을잇호면서도

讀者 의눈에 서툴게보이는것이다 그리고옥이 가축거되엿슬때그어머니생각에는 이런意象을틀리는데는 정을해야하것다고 정쟁이를블너다가 경을외웟다고한것은 그어머니의無知한것을말하려한듯하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惑世誣民하는迷信的技術로서 그生活資料를삼는점쟁이니 무당이니하는것이 더히 네와가리 貧窮의最下層生活者에게가서 도한푼말이엇시 정을읽어주는것은 좀생각키어려운일이다。더구나 그놈이 愚徒이라는것을말하고서。그리고 序述方法은 모다 進行形으로햇스나 차라리

過去 形으로 序述하엿드면 더流暢하지안흘가한다。

哀想

磨斗生

廢墟의黃昏
볏발이 잠자리날에가티 엷다

×

문허진土壘에 안저 하염업시 퍼지는 과로운생각의 물결을 푸강는눈으로 바라보노니……

×

미운世上과 싸호다가 희지처너부러진敗殘者 오날도 멧치나 이층대를 오르고나렷는가?

×

까-악 까-악 悲哀의作家까마귀는 압퍼진늙은나무우에 하날을 우러러 기나서울음 울음을리네

×

미칠뜻안타가운마음이여! 일흔 비인가삼이여! 銀色의 날개(飛行機)를 타고 그저업시넓은 저-하날끗으로 훨-훨날아가버리고십고나

[想華]

언덕우에선草家 (上)

高灣民

黃昏에 假裝을 끄을고 나는 들로 散策을 나갓섯다。

들은 아조 一變하엿섯다。數日前만해도 湖月黃波를 이루엇드니……그러고 한개한개의 이삭이 호랑이 수염처럼 威勢가 堂堂하게、『生의意慾』에 膨脹해 잇드니……。

보리는 모다 베이여잇섯다。또글또글 푸르게 남어잇든것은 일밧이엿다。칼로 벤것처럼 整然한 長方形 或은 三角形의두더이 몃개식모여서 形成된 모人자리가 이제야 뚜렷이 그存在를 나타내엿다。

하야케 비말라 누은 보리人대와의 混然는 갓나물 어린아히와 알밥이 떨지안흘 自然론人과의 그것과도 비슷하엿다。遷落하야가는 한時代 한우리와 新興하는 한우리 그것과도 가탓다。

廢墟! 그상처은 太陽光線에 끄슬려 검고、얼굴은 荒廢와가티 여세엿다。인텔리겐차의 蒼白한 얼굴에 와은 나의 눈은 새삼스럽게 놀래엿다。

녯날에 나는 이들을 蒼生이 벗엿섯다。도스토에프스키와가티 나도 「惡靈」가되며 無罪한 敎會堂에서 說敎를 파라 돈을 모으든 僧侶에게 이光景을 보여주려고하엿섯다。그러나 오늘 이것은僧侶의 標本이 아니엿다 위선 그들에게는『偉大한愚鈍』가 잇섯다。設或 인텔리겐차以上의 不安이 잇다하드라도 그 偉大한 愚鈍는 能히 그重壓을 견뎌낼것이다。이것은 그들의 가장 큰 優越性이다。이러한 世上에 살아야하게 태여난 人間에게 가장 要緊한것은『思想』을 自由自在로 支配할수잇는『肉體』이기때문에。

蒼白한 思想의 屍體만이 잔뜩엎어잇는나의 腦髓는、이들의 센 農軍의 肉體를바라봄으로써 그思想이 검어저오고 크屍體가 蠢動함을 늣기엿다。

맑은 생속에는 六月의푸른하날과 힌구름이깁게 옹키어저도 안코 떠려잇섯다。

그러나 田園에서 필레의 곱다랏고 平和스한 詩가 發見한지는오래엿다。

『이삭줏는女人』은 그의說明者인 두사내아이와 차우고잇섯다 두사내아이는 그들의 先約한領土로부터 그女人을 내쫏조러하엿다。그土地所有者의 머슴이보리를 질므리올때마다 두어린아히는 아첨을하엿다。

너머나 悽慘한『이삭줍는女人』은 입안으로 旣說을 잘호면서 그래도、그방해서 나가려고하지 안헛다。

에쎄에닌의 自殺!나는 에쎄에닌의 [illegible]의 斷片을 回想하면서 오히려 거름을 멈추지 안헛다。에쎄에닌의 絶望은나에게는 입의 悲痛의 쏫쏫엿다。따즈마한 집은 내가 업는동안에 거우러지고 늙은 개는 오래 녯날에 죽어버렷다。

꾸부러진 녯서울의 거리에서 나는 죽으라는 運命이나 보다。……

어느듯 나는、언제든지 겻흔길의 限界를 넘어서섯다。엷의 나는 [illegible]가진 언덕길로 드러서잇섯다。

나는 이저버리려다。나는 凄慘하고 나를 괴롭힌 어두움을……。

내눈압헤는 한채의 草家가서잇섯다。이 몰을 散策할적마다 먼데서 바라만보든 그草家가바로 내 눈압헤 나타낫다。草家압헤는 손바닥만한 마당이 잇섯다。어련안히의 고무신짝이 셋 그마당우에 굴러잇섯다。바닥에 막구멍이 난 헌고무신— 그 고무신이 처음 이집어린이의 발에 신켜슬적부터 分明히 막구멍이 뚤렷슬고무신。畏痴이다른 녯짝의 松板으로된 부엌문압헤 내버려둔 칼은、아마그『고무신』의 主人이 나물캐는데 쓰는칼인듯。

『지붕마루』우에는 검붉은 생추가 풀이죽어 싸혀잇섯다。벽 [illegible]

그래도 문고리에는 잘쑬쇠가 채여잇섯다。잘쑬쇠라고는해도쇠대로열고 닷고하는 그런사흐스런게아니라、못쓰게된것을 헌겁으로 동여맨것이엿다。나는無意識的으로 苦笑를 하려고말엇다。

내가 散策길을 하려와잇다며— 하고 나는 부엌을 드려다보앗다。열개에 갓가운그릇에도 놀랄셋… 「렉커니와、오가리소의 얌전하게 절린풀은 실로意外엿다。나는、밧안에는 정말 흉홍한것이 들어잇슬것가튼 幻影을 늣겻다。

西班牙의初夏祭

西班牙에서는 五月이면 五月祭를 지내는光景이니 國民들이 盛大히擧行한다는데 寫眞은『마드릿드』市의 盛況으로 五月祭는 全民國이 다—깃버하는名節이다

史外異聞

米人漂着

湖岩

朝鮮人과 米國人과의最初接觸이 언제부터인가함은韓米交通史에잇서서 當然히 일어날 問題이다。舊韓國時代의 굿게닷친 門戶를 가장 먼저 열어준 米國人과 朝鮮人사이에 正式交通이 생긴것은 一八八二年 韓米條約의 締結된以後의일이지만 이 正式交通이 열리기前에 잇서서 米國人이 朝鮮땅에 最初로 발을드린것이 언제인가하면 大院君이 한창 天主敎徒를 虐殺하든 高宗三年 丙寅(一八六六)五月에 鐵山宣沙浦에 漂到한 米國人으로서 嚆矢를삼는바 이는 大同江에서 燒破된『쉬어맨』號의 慘事가 일어나기 바로數個月前에 생긴일이다 그러나 史實에 잇서서는 宣沙浦漂着人보담 十一個年을압서서 哲宗六年乙卯(一八五五)六月에 通川前洋에 漂到한 米國人 四名이잇섯스니 이것이 米國人으로서 朝鮮땅에 발을드린 처음일것이다 다만 그네들과 言語文字를 서로通하지 못하는 때문에 어느나라사람인지는 몰낫스나 그容貌로 말미암아 異樣人임을 알엇섯다 朝廷에서는 前例에依하야 또는 그네異樣人들의 希求에 依하야 通川으로부터 京城에 더려다가다시 淸國에 護送할새 衣糧을 供給하야 一路無事히 北京까지 到着하엿섯다 이때 그네들을 더리고 北京에드러간 朝鮮使臣이 北京에來往한 俄國人에게 依賴하야 여러가지로 異樣人의 來歷을 探問하엿스나 言語가 서로 通曉되지 못하엿다한다 그리다가 累日을두고 詰問하든끄테 비로소 그네異樣人들이 花旗國人임을 알게되엿다 花旗國이 곳 米國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花旗國이 곳米國인줄을 알지못하엿다 다만 花旗國이 俄國東北三千餘里에 잇는것과 또는 自古로 中國과 相通하지안흔것을들어 알게되엿다 그럼으로 그네 異樣人들을 어데로 護送하여야 할는지 몰라서 多日을 論難하엿스나 決定을 보지못햇다 이때문에 朝鮮使臣이 淸國禮部와 理藩院과 二旬이 넘도록 交涉을 거듭한 結果 겨우 落着을지엇다 이말은 鄭經山神香編(卷之四)花旗國漂船이라 題下에 씨여잇다 그러나 同神香編에는 漂着年月이 乙卯春으로되엿고 漂着地點이 珍島로되엿슴은 잘못인가한다 이것은 備邊司錄과 政院日記를 對照해보면 곳알것이다 漂着의 年月은 乙卯春이아니요 乙卯夏이며 漂着의 地點은 珍島가 아니요 通川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十年後인 高宗二年乙丑(一八六五)八月에 三陟海汀에 漂到한 異樣人三名이 역시 米國人이엿고 또그 翌年이 곳 高宗三年丙寅인데 上述한 宣沙浦의 漂着이 잇섯다 이때만은 米國人인줄을 알엇다한다。(備邊司謄錄九七、十九數參照)

家事敎育의急務 (上)

金浩稙

近者 歐米各國에 新敎育思想이 勃興하야 所謂 自由主義를 主로한 全人敎育 合科的敎育 自學主義敎育 創造的敎育等의이름으로 나타나게되여 자못先進諸國의敎育은모다 生活로부터 生活에의敎育으로 그動向을가지게되엿다 昨今日本敎育思想에도 크다란 轉換을이르켜 所謂鄕土敎育의소리가날로노파저 그도 아무리가날로노파저 그도 아무

實踐 의城에나아가 初等敎育에職業科 中等敎育에實業科 女子實科의增設擴充 家事敎育을主로하는女子專門學校의 大增設等 一層生活에 卽한敎育에로 識者의興味는옴지어고잇다 따라各種施設이助成 擴充되여 農山村學校에서는農林業에置重하고 商工都市에學校에서는商工業을一層加味하야서 一個의 普通常識의 市民을養成함에 머추는것이안이라

校門 을나서면서부터라도 바로 연장을 잡고 일할수잇는 堅實한 公民을 養成함에 그主力을 다하고잇다。

萬般文化的施設에 充足을보지못하는 現下 朝鮮에잇서서 그實施設이 무어인은 莫論하고 重大且緊急치안임이잇스랴? 그러나 새로운 發展을 新望하는 朝鮮에 잇서서는 참으로 朝鮮을알고 그를爲하야 일할 씩씩한일꾼을 養成함이가장 急務라고 아니할수업다 現今男子敎育이며

男尊 女卑의 固陋한 舊思想을 打破하여버리고 新敎育思想에비치워보나이 朝鮮及朝鮮人의 生活에卽한鄕土敎育이 잇지안흘수업스나 이러한意味에서 朝鮮人의生活그自體를 對象으로하는家事敎育이 그얼마나 重大하며 急先務될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저한다 그러면 大體家事敎育이란무엇인가? 말하자면 自然科學의 理法에비치워調理 育兒 養老 染色洗濯 裁縫 手藝 家庭管理의

理論 과 實際를 아울러硏究하야서 經濟的餘力 時間的餘裕를어더 一層 吾人의 生活內容을 擴充하자는데 그가장重要한目的이잇다 그러면 한마듸말로하자면 生活의理法을硏究한다고 하겟다 世上에는 無依徒食하야 그저 生存만할뿐이가 不知其數나 그러나人間이란 그저 사라잇는것(生存)이 안이라。

新刊紹介

▲農村敎育指針 朴仁德著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農村女子事業協會發行 定價三十錢

▲우리靑年 京城東大門外淸凉里時兆社發行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二十錢

▲朝鮮語音의萬國音聲符號 貫變著 定價八十錢 販賣所京城府堅志洞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英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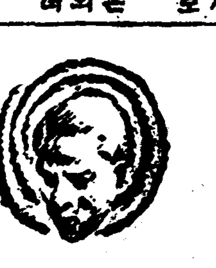
▲靑年太陽 七月號 東京市芝區芝公園十二號の四 日本靑年文化協會發行 振替東京六三六八番 定價二十錢 (和文)

▲朝鮮鐵道協會 六月號 京城府古市町十四ノ十三 朝鮮鐵道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和文)

▲三千里 七月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三千里社發行 振替京城一九四九番 定價三十錢

▲新興 七月號 東京市麴町區三番町一의一 第一書房發行 振替東京六四二三三番 定價二十錢(和文)

▲少年世界 第九號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少年世界社發行 振替京城二一八二二番 定價二十錢



黑風 【64】

韓龍雲 作
金熊超 畫

강도 20

소옥을 유인하는 세사람은눈이 압헤잇지 아니하고 뒤의잇섯다 보이는 물건으로는 압흐로 보는것이 만하얏지마는 보는 정력으로는 뒤로보는 정력이 만하얏다

소옥은 세사람을 노칠까 념려하얏지마는 너무 가까히 따라가지 못하고 세사람은 소옥이를 노칠까 념려하얏지 마는 기다려서 가치가지 못하얏다 가는길이 굽이칠때에는 세사람은 소옥으로 하야금 자기네의 가는곳을 알게하기 위하야 짐짓 거름을 멈추고 소옥은 그들의 자최를 이러바리지 안키위하야 조금 빨리거럿슬뿐이다 그리하야 유인하는 세사람과 조처가는 소옥의 새이는 누가본든지 아모관계가 업는듯 하얏지마는 그들의새이는 가령 천재지변이잇다하더라도 떠러질수업는 관계가 잇섯다 그들은 거름거름이 념려요 생각생각이 주의엇지마는 그보다도 가슴에 숨어잇는 것은 각각 자기들의 깃붐이엇다 그들은 서로십분의 성공을 미드면서도 만일의 념려를 경계하는것이엇다

그들은 지극히 먼것가치 생각키면서도 어느결에 왓는지 모르게 북문밧 호젓한곳에 이르럿다 그곳은 지형이 으슥하게되얏슬뿐 아니라 사람의 래왕도 별로업섯다

압헤가든 세사람은 모아서서 머뭇머뭇 하얏다 소옥은 그것을 보고 역시 머뭇거렷다 세사람은 서서 기다리듯 하더니 소옥의편을 향하야 오든길로도로온다 소옥은 엽흐로 비켜서는듯 하면서 얼굴을 외면하얏다 밤빗츤 어두어서 사람의얼굴을 쉬웁게 분간할수 업섯다 세사람은 점々 소옥에게 가까워젓다

소옥은 눈에서 불이 번적나고 다리가 부서지는듯 하더니 홀연히 길우에 거꾸러젓다 어느결에 그들은 손으로 빰을 따리고 발길로 다리를차서 녀자로 변장한 소옥을 너머트린것이다 이사정을 아지못하는 풍류남아의눈으로 그광경을 본다면 완연히 [illegible]릉모르는 한떨기의꽃이 난데업는 폭풍우에 떠러지는것이엇다

『이년 웬년이 밤중에 혼저 다니니 이년 저방칠하려 다니는고나』

『야 이년이 얼마나 엡븐가 다려다가 처이나 삼을까』

『요런게 엡븐것을 혼저차지할수가 잇나 우리가 다 흘아비니 다려다가 도중으로 첩을삼세』

『홍 안해도 업는놈들이 첩이 무슨 첩이야 나는 다려다가 정실부인을 삼겟네』

이러케 밧고차기로 지꺼리는 동안에 소옥의몸은 세거리의참바로 꼼작할수업시 결박되얏다 세사람은 결박된 소옥을 드러다가 길을 비켜서 조그마한숲넘어다 노앗다。

소옥은 결박을 당하면서 그들의말을 드를때에 그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말인줄은 모르고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를녀자로 알고서 겁탈하라고 그러는줄을 아랏다 그리하야 소옥은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내용을 모르고 녀자인줄로 아는것을 다행히 여겨서 버서날꾀를 생각하얏다

『여보시오 나는 녀자가 아닙니다 노아주십시오』

하고 소옥은 말하얏다

『녀자가아니면 웨 녀자의옷을 입엇니』

하고 그중의 한사람이 웃스면서 말하얏다

『그런것이 아니라 나는 죄도업시 공연히 혐의를 바더서 피신하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야 녀복을입고 도망하는길입니다』

『혐의는 무슨혐의를 바더서』

『혁명당의 혐의를 바더서 지금 경찰이 나를 잡으라고하는중입니다』

『옹 그래어 이것 참 잘되엇고나 우리는 혁명당 잡으려다니는판이다 너의행색이 하도수상하기에 잡엇더니 아조잘되얏고나 정을 잡는다는것이 봉을잡은세음이다 두말말고경찰서로 가자』

하고 서로 [illegible]

物理療法—의作用實現

◎健全한男子의資格을完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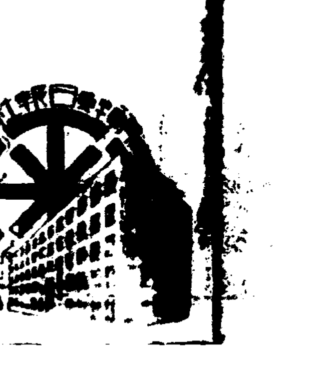
生○器가健全하게發育된즉, 이것이根本이되고基調로되야서、머리가明朗하게되고、日常生活氣分도快活하게되야腦神經衰弱等도씨슨듯이 어데로가버리고、潑剌한元氣奮發心이일어나며、前途는洋洋하야봄바다와갓치人生이明朗하게되니一日이라도빨이體驗하여보시라。

迷走神經의連絡—

生○器健全發育과

勇氣腦力의增進

男子의特徵을發揮함



腦髓가축처저서 脊髓가되고 脊髓末端으로부터 神經이放射狀으로 生○器에分布되고生○器와腦髓와는 迷走神經이直通的으로 連絡되야잇는니 腦髓와 密接한 關係를가지고잇슴으로

腦에겨정과恐怖 悲哀가잇슬時는 生○器도萎縮되는것가티 强健한生○器는腦力을潑剌케하야 元氣精力의根源이되는것이다 그相對的連絡은누구나 首肯할뿐만아니라 進步된호루몬內分泌學說에 依하야 學理的으로 闡明히되얏스니 그럼으로

器性發育不全 機能障害의男子는 따러서腦力의 發達도 [illegible]

一生을남의 [illegible] 不幸한사람들도잇스나大凡 人은男性의特性인快活한元氣와[illegible]力이缺乏하야 法勢的으로 주저주저한人間으로一生을 맛치고 靑少年時代에 不自然行爲의害는 [illegible]低能落伍者가되는 [illegible] 그러한理由로 [illegible]

神聖한問題이다 東洋의 舊道德은生○器에關한것은 秘密에부치는것이 良風美俗이라하고 容易히 낫을性病이라도 醫에게 보이기를 躊躇하야 [illegible] 結婚을回避하며 [illegible]

新新한物理療法 이야기 [illegible]

世界的發明品 으로서 [illegible] 日獨佛專賣特許ホリック眞空水治器는 [illegible] 一回約十分間式本器를自己가秘術하야使用하야 患部에直接物理療法을行한즉科學的眞空吸引力에依하야血循이잘돌되고萎縮無力한生○器에新鮮한血液이旺盛하게流集되고、組織을擴張하고復活力을喚起식혀서發育促進의現象을보인同時理想的으로發現되는에 [illegible] 性的神經衰弱을復活식히고、目不然行爲、過淫의害、遺精、夢精、早漏、陰萎變曲이回復되면、機能도다가치健全하야지고、人生의悲觀을一掃하야서男子의資格을完成한다、그기쁨은靑年뿐만아니라、夫婦愛가冷却하기쉽고깟닥잘못하면風波가일어나기쉬운中年階級의早老者가닯어저서틀어젓든家庭을도握手和合하는家庭이됨으로그歡悅을表白하는實驗者가만타

醫學博士五十餘氏實驗證明推奬

日、獨、佛專賣特許 名譽金牌受領

登錄商標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 內地二十五錢 植民地五十五錢

◇ホリック包莖安全器 金四圓 送料 內地十五錢 植民地四十二錢

◎包莖 은ホリック包莖安全器로無血無痛하게쩨지안코自己가安全하게形成한다

代金引換希望은治療器名을明記하고) 說明書付라고注文次第送呈함 代引은送料十五錢增

無料進呈(非賣品)圖入說明書

造化의秘密、男子의生理的新知識을開放的으로滿載하야本器의內容도詳細說明하엿스며性器衰弱、少男子의深刻한悲哀의事實、本器實驗者의感謝告白文도多數揭載하야잇스니꼭一讀하시라、秘密은安心하고葉書로照會하시라、全部無料로匿名郵送함

僞物 物効果不完한가짜가잇스니꼭ホリック의商標와ホリック眞空水治器를要求하시라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電話芝三三二九 振替東京七一二二 合資會社 東京新療法硏究所

怪魔傳染病病菌 保健線上을攪亂
二十五日現在各種染病患者 府內만六十名을突破

【平壤】눈에보이지안는악마는평양부민의 건강선에 유린하여 적리(赤痢) 장질부사, 성홍열(猩紅熱) 파라지부스등의 병균을퍼리고잇서 이십오일현재 염병환자는 륙십명을 돌파하엿다 평양부에서는 방역주간(防疫週間)을실시하여 엄중한 경계망을부설하엿스나 전염병환자는증가하고잇슴으로 다시엄중한 방어선을펴노코 전염병의침입을 막기로되엿다 일방공사립학교아동의 손을빌려서 선전삐라 이만매를 각가정에 산포하여 일반으로하여금 위생사상을고조케 되엿다한다

造山講習維持難 有志同情企待

【江華】강화군양도면 조산강습소(造山講習所)는 창립이래 십여성상을두고 선교부의 보조와 일반사회의 다대한성원과 동정으로 간신히유지하던바 작년사월에교사는 조산간이학교(造山簡易學校)가 설립되자 그나마교사까지빼앗기고 할수업시 조산교회당을 교사로사용케되여겨우 유지하게되엿던바 금년은 신입생이격증하여 모든설비의 부족과 교사와운동장의 협착으로곤난중인데 이를확장하려면 불소한경비를요하게됨으로 일반사회의 뜨거운 동정을바란다고한다

邑의失策嫌疑로 邑會議員緊張

【安州】지난이십오일 안주읍회의원중 림종륙(林鍾六)윤항(尹栢) 리동연(李東衍)홍우두(洪禹疇)서준식(徐俊植)씨등 다섯사람이 돌연히읍장실에나타나서 읍사무처리에대한내정을 조사키로 착수하는동시 비밀리에 읍장과의밀회가잇섯다는바 이제그내용을조사한바에의하면 안주읍민중 읍내정을잘알고잇는 읍민몃사람이 전긔읍회의원 다섯사람에게 읍행정내용부정사실을들어서투서한것이 원인이되야그와가티 긴급활동을 개시한것이라는바 그투서한내용은 다음과가타고한다

一、邑吏員戶稅等級引下의件
一、邑吏員의公賣林野競落의件
一、邑吏員財産證明虛僞의件
一、邑吏員의公金流用의件
一、諸工事請負事業不正檢査件
一、新設共同墓地伐木失策의件
一、邑吏員更迭의件
一、戶稅及夫役等級不公平의件

爆藥爆發로 鑛夫一名慘死

【新義州】운산군 북진면조리동(雲山郡北鎭面朝里洞)에 거주하는 장석규(張錫奎)란사람은 그곳동양합동광업회사(東洋合同鑛業會社)의구내폭발계에서 종업중이든바 지난이십사일오전십일시삼십분폭발계주임 최영순(崔永舜)과가티 동항내에 다이나마이트다섯개를장치하고 불을붓친후 곳천장에서 몸을피하려하엿스나 몸여히무덧든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야 부서지는돌에 두부를마저즉사하엿다한다

商街에出沒튼 少年窃盜逮捕

【平壤】깁흔밤사이에 평양부내상점가(商店街)에 나타나 대담히도 진렬창을 파괴한후 만흔상품을 절취하여 배에실어다가 다른지방에서 파러먹고잇든색다른소년절도단이 체포되엿다 이십사일오전여섯시경 부내진정(鎭町)유곽압 대동강안에 일척의 적은배가 매어잇고 돗(帆)으로 배를덥허노코 그속에서자고잇는소년을 수상히여겨 취조한결과 진남포부비석리(鎭南浦府碑石里) 김종덕(金鍾德)(二八)으로 이십일일오전두시경 부내본정(本町)신성양복점(信成洋服店)진열창을 파괴한후 세루바지일착외 삼점을절취한것을비롯하야 부내리문리(里門里)할인점과 공모하고전월초순경부터 이십여회나 각처상점을습격하여 수백원 상당을절취하여 배에실어다가 다른지방에 무역하든것을자백하엿다한다

谷山郡에火災

【谷山】지난이십삼일오후칠시삼십분경 곡산군곡산면(谷山郡谷山面)의 집에서발화가되어 일동이전소되여 그손해액은 오백원에 달한다는데 발화원인은 석유에 연소가되어 그와가티 전소된것이라고한다

全襄陽 球大會 大盛況裡終幕

【大浦】강릉——양양포구대회인 전양양개인정구대회는 지난 중앙에서 대성황리에 종막하엿는데우승은다음과가다고한다
一等 金允甲 金秉洙組 二等 金海濬 洪淳鳳組 三等 徐哲 金演燮組

第五回朝鮮監理會 女宣教大會開幕
廿六日부터元山서

【元山】긔독교조선감리회 제오회 녀선교대회(監理會第五回女宣教大會)는 지난 이십륙일부터 동이십팔일까지 삼일간원산중앙교회당내에서 개최키로되엿는데 대회첫날인 지난이십륙일에는 조선각지는 물론 멀리간도지방에서 모여온 이백칠십여명회원이 참석하여 회장 홍애시덕(洪愛施德)씨 사회로 제오회전조선대회는개막되엿는바 오전구시반에는 서만찬식이잇섯고 이어서 대회조직이잇슨다음 원산거포허(巨布許)목사로부터 회원성적금대어시편의 보고가 잇슨다음대 손후 각부위원회가 잇슨다음대회제일일을 맛치엿다고한다

그女子의一生 【143】

春園 作 / 夕影 畫

정희는 금봉에게는 알수업는 무슨 힘이엇다。 정희를 그러케 부러워하는것도 아니지마는 정희를 대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먹고 입고 남녀간에 사랑하고 이러한것 박게무슨 거룩한것이 잇는것만 가타서 저절로 합장을 하고 하늘을 우럴어보고십흔 마음이 생겻다。 지금도 정희가 중문간으로 걸어나가는것을 볼 때에 금봉은 그러한 느낌을 어덧다。 그리고 정희의 가슴속 어느 한편 구석에는 분명 정희와 비슷한 금봉이가 자는하고 단정하고 경건한 얼굴로 무엇에 긔도를올리고 꿀어안즌양이 보엿다。

『임학재씨도 정희와 가튼 사람이아닐까。』

금봉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고개를 들어서 저편에 꼿꼿하게 안진는 학재를 바라보앗다 그리고 금봉은 제 속에 여러 금봉이가 잇는것을 생각하엿다 하나는 임학재를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정희가튼 금봉이、하나는 김광진가튼 잘생긴 부자귀족을 그리워하는 허영에 뜬 금봉이、또 하나는 심상태거나누구거나 저를 따르는 남자면 누구허고나 하로이를 희롱을 해보자는을님과가튼 금봉이 그리고 돈잇 고저를잘 위해주는 어리석한 손명규가튼 남자를 따르려하는 금봉이—— 이수두룩한 금봉이가 제 속에 잇서서 때를 따라서 이런 금봉이도 나오고 저런 금봉이도 나오는것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책에서 본 인도 신화의 몸은 하나에 머리 여럿 가진 배암이 생각켜서 몸에 소름이 끼쳣다。

『사람은 전생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태어나서 업을 짓는대로 도를 닷는대로 이런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저런 사람으로 태어난다든데。 나는 아마 전생 여러생에 정희가티도 태어나보고 울남언니 가티도 태어나보고 그랫던가바』

하고 금봉은 동령와던 탑골승방 노장의 이야기를 생각하엿다

그리고 금봉은 울남이랑 영자랑 숙희랑을 바라보며、

『난 암만해도 정희언니가 제일 바른 길을 것는것가태。그

도모지 모든 정욕을 다 떼고 세상을 멀리멀리 떠난듯한 얼굴이 그러케 조하。그리고 정희언니를 보면 내 마음이 다 업숙해저。암만해도 정희언니가 우리보다 놉흔 세상에 사는것갓태。글세 이게 무에요、우리 산다는게? 밤낫、돈이니 사랑이니 하고? 도모지 추접스러운것뿐이야。그러치 아누?』

하고 한숨을쉬엇다。

『원、뻘、시조를 다하고잇네』

하고울남이 깜짝 놀라는듯이눈을크게 뜨며

『그게다 무슨소리야? 원야종엔 뻘 청승을다 안될까?』

하고 웃어버린다。

학재가 금봉의말을듯고 놀라운듯이 금봉이쪽을 바라본다。

숙희가 제차례로고나 하고

『재는동경서 학교에단닐 때에도 곳잘저런소리를 햇다우。아주긔도도 열심으로 햇지。그칠친한 긔도실에 가서는 우리올반』

하고학재의좋와하기를 빌던 말을 하라다가 손명규를 힐긋보고는 여자들편으로 고개를돌리고 웃음을 삼키며 허룸뻰다。

『웨 개는긔도하던 때 아니던가』

하고 울남이가 숙희를 놀려먹는다。

『그럼 나도 그때에야 긔도도 하는라고 해지。그라도 저금봉아가씨가 원체 열렬하게 신앙을 가지고 긔도를하니깐 나는 되려 식어젓다니깐』

하고 숙희는 병결을바라본다。 마치、

『그게 다 너때문에야』

하는듯하엿다。사실 그러하엿다 숙희도 병결과 서왕사에서 깨끗하지못한 쾌락에 빠지기까지는 별로신앙심은 깁지못하엿건마는 잘때、깰때、밥먹을때에긔도를 올렷다。그러나 서왕사사건이래로 숙희는 몃번 긔도를 올려보랴고도해지마는 고개도숙어지지아니하엿다。그리고정조문제에잇서서는 울남의 의견을 올케여겻다。그러나 그의 학재당은유일한 점——한 곳으로만 나가는 점이、그의 실천에 잇서서는 언제까지든지 둘재 첨이나 셋재점으로라도 맹세코 조병결을떨르게한것이엇다。

『숙희언니나 내나 학교시대에 먹엇던 마음이올햇지——지금은 타락이고』

하고 금봉은 우는 정선을돌고 벽을 향하고돌아안저서 정응을 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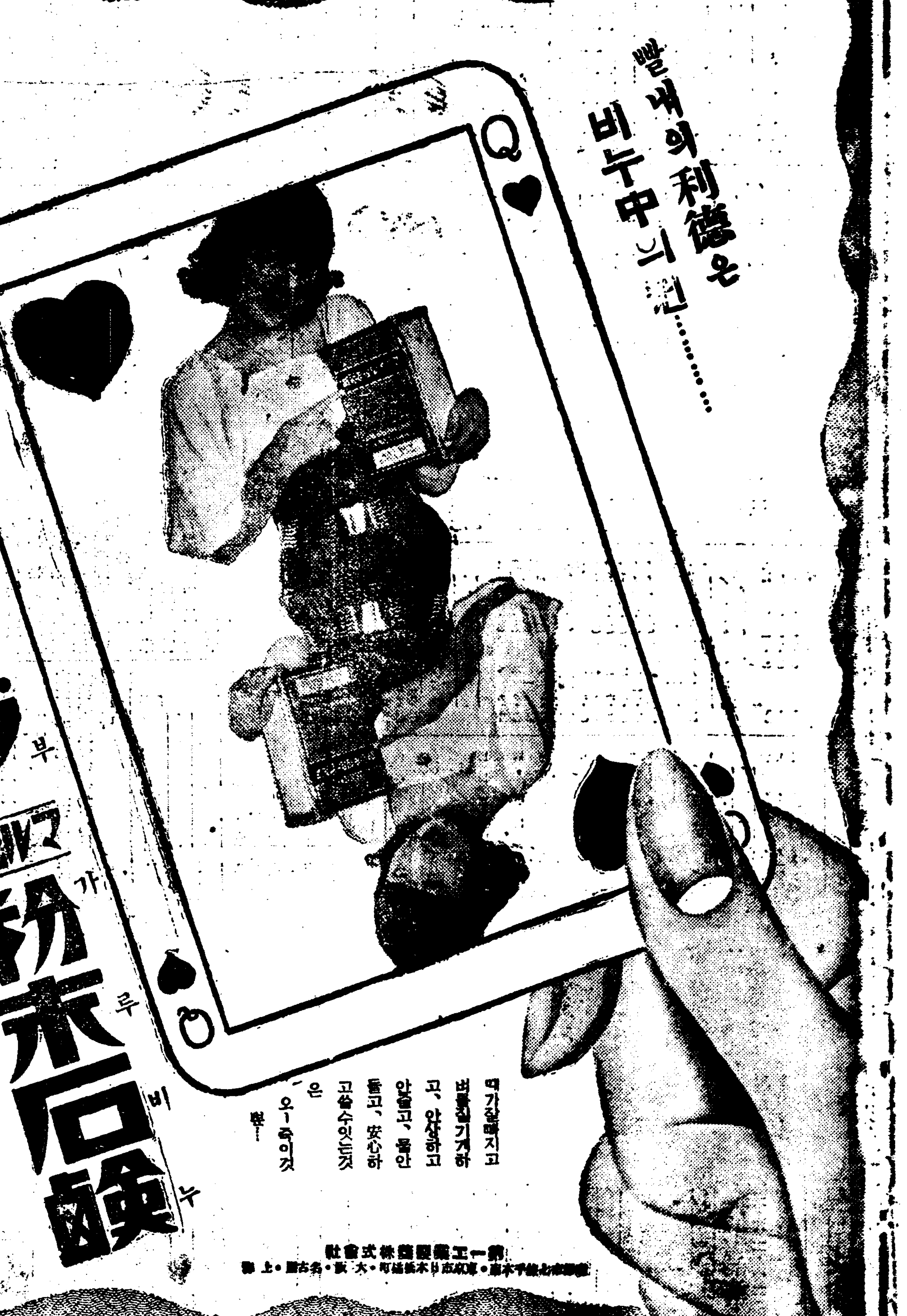
資生堂洗濯石鹸 (자생당빨내비누)

本品의特徵!
一、最高의品質、最低의價格
一、芳香、거품이豐하佳良
一、손을안것칠게、살결은안傷하게
一、洗濯後에不快한내음이안나고는
겨조약

東京·銀座 資生堂

ゲンブ粉末石鹸 (겜부가루비누)

빨내의利德은 비누中의퀸……



マルセル゛ 粉末石鹸
特別廉價品은ゲンブ赤袋粉末비누

때가잘빠지고 비롯질기게하고、안상하고 물안들고、安心하고쓸수잇는것은 오—죽이것뿐…

第一工業製藥株式會社 京都市下京區東九條 東京·大阪·名古屋·上海

人体諸種ホルモンの根基 本邦創始唯一の植物ホルモン劑 ネオネオギー (네오네오기)

全國藥店に有り 一月量 一圓五十錢

ホルモン療法時代來る

肺病、肋膜에욕보는분에

新療法出現!!!

結核菌의被膜을 溶解하고 菌을死滅식혀서 毒素의發生을防止減少식힌다。

本劑發賣後一年餘에임에大千萬의讚狀을맛고體重의增加와精力의充實을告白하여온다

群馬縣北甘樂郡 佐藤進

昨年初夏頃부터過激한勞働과心身의衰弱으로體重이減少하고、도한이나와서、드듸여病臥하게되야診察을바덧더니肺結核이라하야齊藤하엿다그리하야여러가지藥을求한結果、넷날新聞에서얼른 ネオネオギー의廣告를發見하고사람에게付託하야買求服用하엿던바 昨年歲末가차워서服用後먼저食慾의增進과便通이整齊되든것을늣겨그以來貴藥을絕對로信用하야服用後結果는오—즉喜悅뿐!熱도내리고痰도減少되며、體重은一貫이나增加되고몸에活力이橫溢되야只今은全快를잡어보와도、確實히回復된것을늣기엿다。二瓶더急送하시오

本品은約一月量三六〇粒入一圓五十錢으로、全國藥店에잇습니다。發賣元東京小石川關口町電停前 一三九日本微生物硏究所에申込次第送料負擔代引으로急送함但海外는先金을要함

NNIDIS

무서운淋疾을ネオチリン(네오지린)으로退治하라

朝鮮總代理店 木村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振替京城四五七番

仁丹 (四博士責任劑 ポケット必携)

惡疫豫防に(에)仁丹

참말 이것에 잇스므로 밥을먹게됩니다 참말이지 이것업시는 맛이업서서 못먹습니다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四季朝鮮料理法』 定價五錢送料二錢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味の素本舖 株式會社鈴木商店 朝鮮事務所

●工夫中 머리가명하여욱신욱신하야學習이되지안을때쓰는곳

ノーシン (노-신)

올갓수시요머리가시원하고明快히되여工夫가愉快하게되오◆어느藥店이고잇소

水版彩色九度高級品秘中의秘畵 美男美女●四十八態 (四十八枚) 一組特價五圓、見本目錄切手卅錢 京都市西陣局區板倉町 自公社

六月廿六日公開 特別大興行 每日主畫二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一時半七時半

洋畫 團成社에서언제든지第一級作品封切

◆M、G、M、超大作日本版
비터、푸레밍監督
워레스、비리 작키、쿠퍼 主演
寶島
壯烈!絕海孤島에財寶를차저다시금壯烈
傳奇的冒險譚으로本篇은全世界家庭에愛讀되든스틔븐손의名作小說의映畵化!堂堂한名畵

◆M、G、M、傑作品日本版
리챠드、보레스라부스키監督
크라—크、게블、마나로이主演
白衣의騎士
白衣의騎士人類의防壁을직히는醫學界人士들의알혜이感激的名篇을바치고저한다萬人禮讚!!稀見의珠玉篇

◆三映社提供全發聲
曉の市街戰 後篇

全鮮第一 映畵殿堂 光電 團成社

六月二十六日부터特別大興行 每日三回 正午十二時 三時半 八時 階上大人五十錢小人三十錢 階下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미리온게링구監督
룸바 (RUMBA)
조지라프드主演 마—고助演
카롤롬바—드
南國의港口를배경으로情熱의曲룸바의춤!!단사와令孃과도회지의안트로맨스!!主演은보로로에이名곰파—니錦上添花로妖星마—고의魅力!
◉파라마운트特作全發聲日本版
누만도로그監督
超딘센스 사랑과빵 (一名戀と麵包)
◉파社作品全發聲 죠지마샬監督
喜劇 空中에서떠러진戀
후랑구링밤구렝主演 一卷

仁寺洞 電光三○六 朝鮮劇場

六月二十七日부터納凉特別公開
晝夜三回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재무스허윗드氏
極樂守備隊
珍優 오리바—하—듸氏 스탄로래루氏 主演
콜럼비아社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후랑그보사기氏大作品!
마스라오
지미바로—라 작기사—루 主演
大都映畫社特作時代劇
千葉泰樹氏監督
白狐
靑柳龍太郞 矢野あかね 大豫告 主演
新派 新興成劇團 五十名의豪華陣容!!
喜樂座中央公演
七月四日부터公演期待
京城府 電光 優美館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三四一番

產業統制의 答申書骨子
日本經濟聯盟成案

【東京電話】日本經濟聯盟會의 產業統制調查委員會는 鈴木島吉、安川雄之助、藤村義久、玉木喜一郎、長岡隆一郎、土方成美、富島貞、高島誠一의八氏를 小委員에 指名하야 意見書起草하기로 決定되얏든바 同小委員會는 來月中旬까지에 原案作成을終了하야 理事會等의正式의會議를經한後 商工省그他關係政府當局에 提出하는同時에經濟聯盟의 意見書로서 發表할터이다 그러고 經濟聯盟의 產業統制問題再檢討는 明年八月로 實施期限이終了되는 現行重要產業統制法 改正의 意見書중에는 單只同法뿐만이 아니라 이와密接한 關係를가진 工業輸出組合法의 內容及運用改善에도 觸하고다시 나아가 此等

產業統制實施方法 根本方針의 確立에 있어서도 普及할것이다 ... 各業種의 具體的統制方法에 關하야서는 當業多岐에 亘하므로 이에는不觸하기로 決定하얏다 意見書內容의 主要한點은 如左할것이라고 보인다

一、產業統制는 當業者의自治的統制를 그理想으로하나 그것만으로는 完全히實行할수업는實情에잇슴으로 國家權力에依한統制도必要不可欠하다但 國家權力干涉의程度에 對하야서는 充分한考慮를要한다

一、產業統制實行은 充分히 警戒할것으로統制가產業自體의 發達을阻止치안토록 하여야 할것이다

一、當業者自治的統制만에 依하는 自由競爭에 消費者大衆의 利益을 害하는 事態를 惹起하는일이 업도록 그럼으로 所謂「公益規定의 一層 合理的整備強化에 關하야 考慮를要한다

一、產業統制의 現狀에 鑑하야서는 不統一된經營其他의 弊害를 要하는 點이마라 例하면 農林、商工兩省其他各省間의 聯絡統制實行政府의 事務統制 產業合理局의 權限、地位等에 對하야서도 考慮할 餘地가마라

一、輸出工業組合法에서본는 對立強化를 도하야 兩組合間의 連絡에 對하야 改善을 要한다

朝鮮新興產業의 大調查會設置說

속속드리 알자는 目標로

廿六日工業座談會는 그前提?

非常時準備도包含

非常時日本에잇서서 從來產業的으로 等閑視되든感이 不無하든 朝鮮에 새로운 認識을 가지게되어 近年 暴風雨的으로日本內地의 資本이 朝鮮內로進出되야 大工業이 雨後竹筍가티 建設되는中임은 새삼스럽게 말할것이 업거니와 「朝鮮을 속속드리 잘알자 그리하야 朝鮮의產業을 開發하자」라는 目標알에 朝鮮總督府에서는 內閣審議會와도 比擬할만한『新興產業大調查會』를官民聯合으로 組織하야가지고本格的으로 朝鮮內에 新興될수잇는 產業各部門에 全般的調查를 할方針이란 것이消息通으로부터 傳한다。

昨二十六日 朝鮮商議主催로 京城商議 第一會議室에서開催된 新興工業座談會로 말하면普通座談會가 아니라 殖產局長、矢島農林、安井專賣局長各關係課長等 官廳側과 軍部側과 在賀殖銀頭取와 其他各產業會社首腦者等 八十餘名의 大會合으로 午前十時로부터 午後六時까지 晝食時間을 빼이고 凡八時間에 亘하야 眞摯히 各項目에 對한 意見開陳과 研究發表가 잇서 座談會라기 보다는 研究會、調查會라고 할수잇슬程度의것이엇스며 軍部側의 意見開陳과 調查發表는 今般의 座談會로 하지안헛다 이工業座談會는 以上과가튼 新興產業大調查會의 前提로서 먼저 民間側의意見、研究와 關心이 어느程度에 잇는가를 當局이 알기爲한 會合이엇다 하야 注目되는터이라고 한다

요다음은 朝鮮總督府主催로 官民合同座談會를 열것도 推測되며 그리한뒤 大調查會가 設置될것이라는 觀測이 有力한 모양이다

產業別電動力
全朝鮮卅六萬『키로』
產業朝鮮實情內容

遞信局電氣課에서는 朝鮮內產業의發展狀態에 鑑하야 全產業의 原動力이될 電力需要狀況에 對하야今年度四月一日現在로 벌서부터 電動力各產業別調查를하고잇던바 이지음 겨우完了하게 되엇다 右에依하면 全朝鮮의電力은 營業用自家用을 合算하야 二十九萬六千九百二十七키로와트로 前年度同期에 比하야 玆二割年에 二萬六百三十九키로와트의 增加를보엿다 就中大工業、中小工業에 大工業에 吸收되엇기때문에 相當히減少를 보앗슴은으로紡績工業에 잇서서 京城紡績의二五〇〇키로、窯業에잇서서 小野田세멘트의 三、六〇〇키로를機械器具에잇서서 京電供給의 龍山工作所五〇〇키로等이顯著한增加의主要原因이며 其外에 朝窒興南工場 電力十七萬키로는 兩年度에 採用한것으로 이를各年度別로區分하면 今年度化學工業은 一一、五一七키로로 前年比增加率은 二十二%로되엇다 朝鮮內產業別電力需要狀況은 前年同期比較增加率은 如左하다

	電力量 (키로와트)	增加率 (%)
化學工業	一六六、四一〇	二
食料品工業	三一、八三五	四
窯業	二〇、〇一四	一
紡織工業	一八、〇二七	三
金屬工業	一六、四一五	四
農業及水產業	九、〇五一	八
機械器具工業	八、三五〇	八
製材及木材品工業	三、六五二	七
雜工業	三、二〇四	五
印刷及製本業	一、八一九	九
其他	一、八五〇	三
合計	二九六、九二七	七

農林省發表
收繭豫想減
比前年一割餘減少

【東京電話】農林省地方一齊十二三日調 夫春繭收穫豫想高을 白繭千百九十三萬八千四百八十貫、黃繭七百三十二萬九千八十貫合計千九百二十六萬七千五百六十貫으로 前年實數에比하야 一割餘減少

朝鮮簡保事業
第一回諮問委員會

遞信局에서는 벌서부터 昭和十一年度朝鮮簡保積立金運用計劃에 對한 諮問(?)을 展示하고 廿四日 열린總督府에서 要望七件을 陳情하엿다고 한다

朝鮮商議代表
總督府에陳情

二百七十五萬四十二貫(一割二分五厘)의減少를 示하얏다 朝鮮商議賀田會頭外各地代表는 卄七日 午前 總督府及主務局(鐵道)...

朝鮮米穀生產統計
正確과完備를企圖
◇……總督府에서根本的改正

日本內地米穀關係諸統計는 入米年度로부터 從來의不備不完全을 修正하고 全國에亘하야 劃一調查를實施하야 收穫豫想 實收高 在米調查의 正確을期하게되어的確한 信賴할만한 數字로되어잇스나 朝鮮內의 此種調查는 內地의在來調查에比하야 不正確不備를 未免하고겨우 全般的의動向을示함에 不過한實情으로 그數字에 立한朝鮮內 米穀統制의豫想計는 恒常實情과는 틀리는結果가생기엇다 그러고一例를들면 收穫豫想과가튼

天水畓 開畓의境遇 二三年間은 通例作付段別其他에 計上치안는面里도 잇고 新地段別과 가튼것도 實情을 보지안코 登錄段別에依하기도하고 實收의 境遇도 人員不足等으로作付段別에推定段當收穫으로 算出하는等 恒常 生產收穫은 實際米產額에 比하야 적어저서 그結果 米食이 相當히 普及되엇슴에도 不拘하고 統計數字는 累年의米食著減을示하게되다 이朝鮮內의米穀關係資料의 不備

不正確은 米穀統制問題에重要關係를 가짐으로 總督府農產課에서는 明十一年度로부터 同統計의正確을期하고 日本內地의調查方法改正의方針에準하야 朝鮮內米穀調查의正確을 期코저目下이具體方法을講究하고잇다 調查方法의完備에는 적어도 年額三十萬圓을 要하는바 問題가 問題인만큼 빨리 實施할必要가잇서 農林局의新事業으로 十一年度豫算에 要求할터이라고한다

無盡道單位統制
總督府에서方針을決定
各道를督勵具體化

總督府의 朝鮮內無盡會社合併統制는 其後具體化하야 無盡會社本來의 使命에則하야 各道마다 派立될 大小無盡會社를 道單位로 各道別로合併統制키로方針을 決定하고 道殺來各道理財當局을 督勵하야 이促進에努力하고잇는바 各會社모다相互間의利害關係로 容易히 進捗을보지못하고 特히 旣設無盡會社는最高十二萬五千圓、最低一萬五千圓의 拂入資金으로 多額의無盡給付金을契約하는 關係上그經營은極히 不健全하야 苦境道事한비가잇는바 그中에는 苦境打開의一方法으로 高利無盡을組織하고야 庶民金融의城을 脫却하는派立弊害는

顯著한비가잇서 總督府에서도此現況에鑑하야 急速히 統制의具體化를 圖코저考慮를拂하게되어 (合은) 注目할만하다

▲林財務局長談 無盡會社相互間에 利害가錯綜한 關係上念願치는 되지못할지나 總督府의方針을明示하야 各道單位로 合併시키고저 慫慂하고잇다 合併은個로加入者의立會가必要치안코 도合併에依한經營의合理化에依하야 蓄用되는利益을加入者의配當增加와、利息引下에充當하면 業績도向上되고 加入者의利益도 增大되며 그業體

의業務을期할수잇슬줄確信하고 努力하고잇다

福德과共濟
兩會社合併
京畿道內統制情勢

京畿道에서도 右總督府의 方針에依하야 旣定方針의 具體化에努力하고잇는바 客年開城無盡의共濟合併이잇고 仁川無盡도共濟無盡과의間에 合併交涉이 進行되며 京畿로 ...

◇製造煙草賣渡高 專賣局六月中旬製造煙草賣渡高는合計百十二萬九千五百十圓으로 年同期에比하야 十四萬五千二百九十八圓增加인데 그各支局別은京城四十三萬八千三百九十一圓 全州二十七萬九千三百四十二圓 大邱十九萬三千三百一圓 平壤二十萬八千四百七十一圓이라고

鮮航同盟會
最後的決心
受荷主와直接契約

鮮航同盟會에 對하야 ... 十九日午前九時부터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今井田總監以下 在京各委員出席下에 今年度第一回朝鮮米保護事業諮問委員會를 開催하고 ... 九年度 所屬積金으로하는 旣往年度所屬積金 第二回 ... 朝鮮米運賃協定問題에 對하야 鮮航하야 今後日本內地受荷主와 一同盟會에서는 契約荷主保護의立場에서 盟外船의 跳梁을 防止하고잇는바 豫想되는 總督府의 調停에 잇서서 再次 不成立의 境遇에는 總督府에 一日 廣務를 어든後 朝鮮內荷主와의 提携를 斷念하고 多年日本內地側 受荷主의 希望대로 日本內地受荷主와 提携하야 今後 日本內地受荷主와 直接契約하기로 最後的態度를 決定을보앗는바 이것이 實現되는 境遇는 現在의取引이에프、오ー베ー으로되어 자못 不利하게될으로 關係各方面에서는이推移를 重視하고잇다

積荷漸減
盟外船活動으로

朝鮮米運賃界의 盟外船活動을依然 旺盛한데에 同盟會의 七月上旬積載豫定數量은 約五千屯으로 前年의一萬二千屯에比하야

和蘭銀行
利下斷行
五分을四分로

【電通암스텔담二十六日發】和蘭中央銀行은 二十六日公定步合을 五分에서 一分引下하야 四分으로 發表하얏다 同行은去四月金本位國의危機에遭遇한以來三回에亘하야 利上을行하고 今回로二回에亘하야 利下를하얏는데그經過는如左하다

四月四日	二分五厘에서 三分五厘로
四月九日	三分五厘에서 四分五厘로
五月十五日	四分五厘에서 四分으로
五月三十一日	四分에서 五分으로
六月二十六日	五分에서 四分으로

中國의砂糖管理
◇……內外一齊反對

【電通上海廿六日發】國民政府의 實質的砂糖專賣案인 砂糖管理法案並其販賣機關인中華糖業公司의 設立準備에 對하야서는去五月廿六日漢口總商會로부터 外交部長 汪精衛氏에對한 一、條約違反 一、日本人의旣得權益侵害 抗議를 與한외로外人並日本人並中國糖商의 一齊反對에 遭遇하고또各方面으로부터의 數次의抗議에依하야 財務部에서는드듸어管理法案實施를 無期延期할意向을漏說하게되어다 目下管理委員全部는 南京에 集合하야善後策을講究中인바 卄七日 孔祥熙氏에게 手交될 日本商人의第二次共同抗議書 最後로砂糖專賣는 드듸어實施不可能케되어一段落을 告하리라고 보인다

上海市場
棉花、綿糸
大暴落出現

【上海二十六日發電通】上海綿布交易所에잇서서의 棉花及綿糸의市勢는 過般來慘落의 金融逼迫及在荷增加로 大勢軟調를 示하고잇던바 二十六日朝來北中國의 形勢再惡化의報에 當附부터 崩壞하야 最近稀有한 不正常을보이여 外商의旗勢에도 不過함이 判明되어 이에伴한 證券의低價引을 바다보고人氣로되어 棉花綿糸모다 大暴落을 演하얏다 七千의 慘落이엇다

今日財界 (廿七日)

安取의 總會紛擾
出席株疑義로

【安東電話商通】安東取引所定期株主總會는 二十六日午後四時出席者는 本人四十一名(一萬五千五百二十一株)委任狀四十三名(八九百八十一株)으로 먼저 土井理事長으로부터 營業報告가 잇슨다 京城홍亞으로부터 出席株數에疑惑가있다하야 質問할 會社側은株主會로부터 委任狀은 開會前에 提出이 업섯슴으로 이를 認定하지 안는다고 主張하야 議場은 依然混亂에 陷入케되어 議事의進行은 不能케됨으로議長은 休會를宣하고 協議하얏스나 議論이 金錢으로 沒하고 六時五十分續會하얏스나 會社側은 依然 議案을 解決할... 一、現任理事者는 信認하지안는 會社에서 提出하라는 要求를 承認하지안코 株主會에서는 委任狀을認定하라고 會議는 全部退場하얏다 會社側은 이에不關하고 會議를 續하야 午後七時原案全部를 可決하얏다 株主側에서는 午後七時十五分에 對策으로 檢查員五名을 選任하야 會社의 檢查를 한다는 假決議를 하고 七月十四日午後一時 臨時總會를 開하기로 決定하고 八時散會하얏다

訂正=二十七日附 本面記事中『安取配當復活』이라題한 記事中 安東取引所代行會社의誤를 安東取引所라하얏슴은 訂正함

經濟界消息

○京紡臨時總會=京城紡織會社에서는 二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重役會를 開하고 總議한結果 七月十一日午後二時부터 同社에서 臨時株主總會를開하고

一、新株式募集에 關한報告件
二、取締役三名 監查役一名增員의件
三、從來年一回六月末의決算을 年二回로함件
其他附議하기로되어다

商況 (廿七日)
株式 結局下放
前場暴落 暴落

宋哲元軍滿洲...

市場六感

株 今前場東新은 中間價百三十七、八圓의因緣價로下放▲百二十五圓臺로下放▲이번에는 百三十圓割이 정작나오고말것이냐? ▲中國側이 日本要求대로應한다고 正式回答文을修交하얏고 宋哲元軍退却을實施하나 市場은無好感▲後場東新은 百二十四圓臺로 續落 평소리가나고저말것으로보아올까? ▲어보다도問題인 明年度豫算編成이 軍部

米 一服狀態이든 市勢는 又復反撥을示하얏다 그原因은當限納會에至하야 米의關係이거나 或은拂下米申請에對한關係인모양 두고보면알것지마는 ▲萬一渡米難의原因이되엇다면 渡米難의市勢도今朝의後場으로서 終了될모양 ▲今日에好雨를 發表한天氣概況은 不適時好雨를見하는때는 植付가完了

外藏相對立으로 어찌될가하는 關心處▲三個年繼續費인 인프레의大反動途中이란말을 否認할 勇氣가업스니 게정

되리이지 ▲植付를完了하고 田時代에入하는때는 豊作의氣分이濃厚할것을可期 ▲아무리 豊作을豫期한다할지라도 正米의實勢가 樂觀을許하지안는반큼 市勢의惡落은 難望일것도 갓다 果如何? ▲그러나 米價의 大勢란 豫測할수업는일이다 어느 程度까지 昂騰할때에는 軟將軍이 突起하야平地風波를 일으킬지 누가 알랴? ▲如何間 大勢는 旣히 百餘丁의 昂騰을 作하얏슴 買團執도 亦不安

中國回答修交
市勢엔無影響

市勢又復反撥
當限納會關係?

今回政府의 古米三十五萬石拂下發表를接하고도 皮肉的反高로 三十圓十錢까지 奔騰하든 阪地市勢는 一服狀態를 보하더니 今朝又復一高를示함에 至하엿다 그

因綿場서下放

前場은 宋哲元軍滿洲國侵入을 一蹴된 市勢는 앙등으로 東新은百三十七八圓因綿場에서 採合이되니가될것이엇다 ... 反落을入하야 前場은 結局阪止九十三錢으로 引

後場續落

中國側回答文修交 懸案이고 觀荷不動으로 結局前에比하야 東新四十錢低 인 百三十五圓二十錢 (低價四圓 九錢)日產七十四圓三十錢 (低價三圓七十錢)、大新八十四圓四十錢 鐘新二十五圓十錢에 各大引하고 六十二圓丁

期米 八圓關門
前場突高 肉迫

昨後場阪地三十七錢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十錢인 八十七錢인 亦昨止同樣의 報를 接하고 突高한 後 阪地八節二十九錢으로 場高하엿다가 結局阪止九十三錢의 反落을入하야 九十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頑強

圓九十六錢에 六丁高로始場後九十錢으로 四節九十八錢 五節九十七錢에 強調이고 別欄가리止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刺戟材料待의人氣로 氣迷이오 內外債共히 保合權에도 強含이엇다

▲甲五分利 一〇四、〇五▲一圓四分利 不申▲二回四分利 不申▲佛貨四分利 一八六、七五

實物前場取引

長期取引=長期取引日產限七十三圓九十錢

日產新株氣配

東株市場에서의 日產新株氣配는如左하다

六月二十四日	二〇、二〇
二十五日	一九、八〇
二十六日	一九、三〇

昨今天候概況
南西는降雨

各地當限受渡內容

朝取期米取組內容

各地正米

京城強含
有力所持側의 實惜으로 相場은 株가 明하야 底意強堅을 示하얏다 九仁三等二十七圓七十五錢 一等白米 二十圓五十錢

仁川引締
清算의 強調와 在庫薄으로 所持側은 賣急치안코 取引은 閑散이나 氣配는 引締되어 丸仁三等二十七圓五十五錢 四等二十七圓五十五錢

釜山強含
市場은 實物 三千以上의 取引이 잇섯다 ... 一等白米十一圓八十五錢

大邱不變
清算의 好市勢를 듯고도 實行一巡의 沈黙狀態이오 市勢는 不變 角ブ三等二十八圓丁 四等二十七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十四錢

群山小高
遁着一輛、清算의反撥로 氣配도 强高이나 閑散 角ブ三等二十七圓 九十五錢 四等二十七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底堅
持米側의 實惜으로 氣配 一般이 되고 傍觀하야 取引은 極히 閑散 丸ホ多賣三等二十九圓五十錢 四等二十七圓九十錢 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五十錢

大阪三品市場後休
大阪綿絲棉花人絹의 三市場은 當限受渡準備로 今後場부터 明日前後場 例休이다

堂島前場反撥 【大阪電話】

商品 (廿七日)

◆京城手形交換高◆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海外爲替◆ ◆大阪金利◆ ◆金買入價◆ ◆對外爲替◆ ◆京城正米◆ ◆仁川正米◆ ◆京城雜穀◆ ◆大阪正米標準價◆ ◆仁川大豆◆ ◆京城綿布◆ ◆京城織物市況◆ ◆日本交易市況◆ ◆鮮油沖價◆ ◆鰊搾粕沖價◆ ◆滿州商況◆ ◆大連特產市況◆

◆朝取短期◆ ◆朝取期米◆ ◆大阪長期◆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堂島代用日步◆ ◆朝鮮各地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府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綿糸◆ ◆大阪棉花◆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